

제주교구 2019년 하반기 사제·수도자·평신도 연수

# 제주교구 청소년 사목의 현황과 전망

선교사목위원회



청소년과 젊은이는 교회의 미래인가?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보였는가?

김석주 신부



# 청소년과 젊은이는 교회의 미래인가?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보였는가?

- 제주교구 청소년사목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과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

김석주 베드로

## 시작하며

“새벽 1시에 학원을 마치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47.6%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8년)

“초중고 아이들의 100명중 16명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행동장애와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학교보건진흥원)

“청소년 사망원인 2위는 자살이다.”(서울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조사, 2007년)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 이런 현실 앞에서 교회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목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을까? 교회 공동체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청소년사목 담당자로 12년을 사목하면서 많은 강의와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공통적인 청소년사목의 실패의 원인은 외부환경(입시위주의 교육, 부모들의 무관심, 기술과 과학, 자본주의 시장경제, 소비문화, 소극 양극화,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비그리스도 국가의 한계, 디지털 미디어 문화,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쟁노리와 인간관계)으로 인한 주일학교 참석률 저조, 프로그램의 부족, 사목자와 부모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과연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외부환경만이 청소년 사목의 실패로 규정할 수 있는 원인일까? 나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도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목자들의 사목방향과 시선, 그리고 교리교사들의 관심과 준비에서 그 원인을 성찰하고 싶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사목과 교리교육’, ‘청소년들을 미래라고 규정하면서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목자들과 교리교사들의 사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청소년사목은 무엇인가?

“사목을 ‘인간 구원을 위한 교회의 총체적 행위’라 보고, 청소년을 ‘유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위치한 세대’로 볼 때, 청소년사목은 젊은 세대를 위해 교회가 하는 총체적 구원행위라고 할 수 있다.”<sup>1)</sup> 그러기에 현대사회 안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구원행위에 대한 교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청소년사목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 청소년 사목에 대한 정의

#### ☞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가톨릭 교리와 사상에 기초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도직 활동”

#### ☞ 미국주교회의

“청소년의 요구에 대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응답이며,  
청소년 고유의 재능을 더 큰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

#### ☞ 인천교구 시노드문헌(청소년 1장)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인간(루카 1,52)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교회의 활동”

「교리교육 총 지침」은 시대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청소년사목과 교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를 정확한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교리교육은 더욱 더 폭 넓은 청소년 사목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교리교육은 상황 분석이라든지 인간 학문과 교육에 대한 관심, 평신도와 청소년들을 자신의 협력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sup>2)</sup>

「교리교육 총 지침」은 청소년 사목은 교리교육보다 “폭넓은” 것이라는 정의와 함께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다루는” 맥락 안에서 청소년

1) 구자균, “청소년 사목과 양성”에 대한 논평, 천주교 수원교구 청소년사목연구소, 2018, 61쪽.

2) 교황청 성직자 성, 『교리교육 총 지침』,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편찬,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184항.

교리교육이 이루어 질 때 “성공적” 일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보완되어야 할 요소로서 “상황분석”, “인간학문과 교육에 대한 관심”, “평신도 공동체와 청소년들과의 협력” 등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우리 교구가 교도권 안에서 가르쳐야 할 청소년 사목은 무엇일까?

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 12년간 우리 교구가 걸어왔던 청소년사목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을 통하여 우리 교구에 필요한 청소년사목의 개념을 재정립하려고 한다. 지나온 시간을 성찰하는데 불편한 진실들이 많다. 불편한 진실에는 사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교리교사들에 대한 이야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불편한 진실을 통하여 사목자와 교리교사들의 문제를 드러내려는 것은 아니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다. 미래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 1. 한국교회의 청소년사목의 상황

### 1) 교회 언론매체(가톨릭평화신문, 가톨릭 신문 중심)의 이야기<sup>3)</sup>

#### (1) 가톨릭평화신문

‘초중고 주일학교 등록 및 출석률 저조’, ‘청년미사 참례율 7% 심각한 현주소’, ‘학년 높을수록 주일학교 등록 및 출석률 저조’, ‘고3 출석률 5%’라는 통계수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를 외치며 청소년사목에 힘을 쏟는 교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입시위주의 사교육 열풍, 성적 지상주의’, ‘청소년 흡수하지 못하는 교회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청소년들을 성당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목자의 관심이다.”라고 제시하며, “교회와 교사 눈높이를 맞추고”, “편안하고 즐거운 공간 마련해줘야”, “청소년 프로그램 적극적 활용 필요”를 청소년사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3) 노우진, 『현대 가톨릭 청소년사목에 대한 재고와 전망』, 돈보스코 청소년영성사목연구소, 2010, 9~10쪽 참조.

## (2) 가톨릭신문

「청소년사목, 긍정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필요」라는 기사를 통해서 “초등부 주일학교로부터 중고등부로 올라갈수록 부모의 학업위주 사고와 이를 극복하는 신앙교육 프로그램의 부재가 주일학교의 참석 감소로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교회 내적인 문제로 “청소년 사목의 인적 물적 자원 부족, 프로그램과 교재의 부족, 지도자들의 자질문제와 짧은 교사기간, 청소년 지도자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무관심, 본당 사목 안에서의 청소년사목의 위상 등”을 지적한다. 그래서 청소년사목의 패러다임이 시급하며 “체험 및 영성적 교리교육이 필요하다.”, “주일학교 출석 비율 학년 오를수록 저조, 사회 변화에 따른 새프로그램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 2. 제주교구의 청소년사목의 상황

최근 20년 사이에 한국 가톨릭교회 내에서 관심이 증폭된 청소년사목은 각종 학술 모임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하지만 앞에서 열거된 보도매체의 분석이나 기존의 보고서의 내용과는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특히 정확한 청소년사목의 개념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대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된 외적인 원인만 열거하고 대안이나 해결책은 명쾌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가톨릭대학교 최준규 신부는 「가톨릭교회의 청소년사목과 교회의 권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청소년사목을 포괄적·통합적 정의를 시도한다. “교회는 비전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며, 긍정적인 권력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사목의 활성화를 희망한다.<sup>4)</sup>

제주교구에 2002년에 착좌한 강우일주교님께서 해마다 발표한 사목교서의 주제를 살펴보면 청소년사목의 목표와 방향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 「2003년 - 말씀을 증거하는 소공동체의 해」, 「2004년 -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되는 한 해」, 「2005년 - 가정 안에 육화되는 소공동체」, 「2006년 - 사랑의 실천으로 가족을 이루는 소공동체」, 「2007년 - 자녀들과 함께 일구어가는 신앙의 소공동체」, 「2008년 - 젊음으로 살아가는 소공동체」, 「2009년 - 어린이와 함께하는 소공동체」, 「2010년 - 가장이 출선수범하는 소공동체」, 「2011년 - 지역

4) 노우진, 같은 책, 11쪽 참조.

사회와 어우러지는 소공동체», 「2012년 - 세상을 사랑하는 소공동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소공동체», 「2014년 - 인간과 자연에 평화를 이루는 소공동체», 「2015년 - 작은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소공동체», 「2016년 - 자비를 베푸는 소공동체», 「2017년 -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 「2018년 - 생태적 증거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 「2019년 - 생태영성의 삶을 사는 소공동체」<sup>5)</sup>

앞에 열거한 사목교서 주제들은 「교리교육 총 지침」에서 가르치고 있는 청소년 사목은 교리교육보다 “폭넓은” 것이라는 정의에 맞는 내용이며,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다루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리교육의 주제들이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분석”과 “인간학문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며, 소공동체를 통하여 “평신도 공동체와 청소년들과의 협력”등을 제시할 수는 모델이다. 그리고 최준규 신부가 제시했던 포괄적·통합적 청소년사목의 현실적인 주제들이다.

그렇다면 교도권으로 선포된 사목교서에 내용에 따라 청소년사목과 교리교육을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성찰해 보자.

## 1) 조직

### (1) 교구 조직

교회의 조직은 하느님 백성의 친교와 일치, 심화·성장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제주교구는 이 존재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구청 조직을 개편하였다. 사무처와 관리국은 교구청의 교회법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유지되고, 사목국, 가정사도직, 교육국, 사회복지회, 성소사도직은 복음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한 협력과 연대 속에서 한 팀을 이뤄 통합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복음화실’을 신설하였다. 각 부서는 행정 명칭에서 사목적 명칭인 선교사목위원회, 가정사목위원회, 사회사목위원회, 성소사목위원회로 개편되고, 청소년사목을 담당했던 교육국은 청소년사목위원회로 개편된다.<sup>6)</sup> 이 개편은 통합적사목을 지향하는 제주교구의 이상적인 선택이었다. 하지만 전환에 대한 전이해가 없는 직원들은 타부서의 업무를 더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5) 천주교 제주교구 복음화실, 『천주교 제주교구 사목계획서』, 천주교 제주교구, 2003 ~ 2019 참조.

6) 천주교 제주교구 복음화실, 『제주교구 사목조직안』, 천주교 제주교구, 2017, 12~15쪽 참조.

받아들이는 경향도 나타났다.

청소년사목위원회는 작은 교구의 한계(홍보, 재정, 시설, 행정과의 관계)를 복음화실장의 중재로 선교사목위원회와 협력하여 극복하였다. 그리하여 전국규모의 대규모 행사들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다. 가정사목위원회와의 협력은 청소년들의 성교육(틴스타), 젊은이들의 혼인교육(혼인 멘토링)의 공통분모를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성소위원회와의 협력은 예비성소자들에게 성소의 씨앗을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협력은 상담센터 연결 프로그램, 부모특강 등 중요한 공유를 할 수 있었다. 사회사목위원회와는 사회복지시설 체험과 비안네 장학금의 혜택의 자선을 교회 밖으로도 실천할 수 있었다.

## (2) 청소년사목위원회 조직

### ① 청소년법인 설립

신자유주의 경쟁문화, 타락한 성문화 등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법인을 전국에서 7번째로 설립하였다.(천제교 2013-035, 2013. 5. 9)

➡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 : 살레시오수녀회에 위탁운영

### ② 가톨릭대학생연합회 통폐합

각 대학에 있었던 대학생연합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여 국제대학교, 한라대학교, 관광대학교 학생회를 폐지하고 제주가톨릭대학생연합회에 흡수하였다. 그리고 제주교육대학교는 제주대학교에 통합되었다.

➡ 통폐합 이유

캠퍼스 복음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직만 남아 있는 단체가 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황정섭 수녀와 살레시오 신성공동체 수녀들의 도움을 받아 행사 중심의 대학생회에서 복음중심의 대학생회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졸업생들의 반발이 많았다.

➡ 주모임 시행

매주 2회(제주대학교, 청소년사목위원회)에서 주모임을 시행하였다. 청년교리서와 유켓 교리서를 통독하고 공부하였으며, 청년성서 그룹공부가 이루어졌다.

이 모임에는 제주대학교, 한라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한다.

### ③ 청소년사목자

#### ➡ 교리교사연합회 통합

교구장은 통합적 청소년사목을 위하여 제주교구의 모든 본당은 ‘청소년사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천제교 2011-056, 2011. 12. 15) 이에 교리교사회 중심의 교리교육에서 공동체 전체의 관심을 위하여 구성된 청소년사목위원회모임으로 흡수하였다. 교리교사연합회는 2011년 제주교구 교리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하고 해산되었다.

#### ➡ 청소년사목자연수

매년 3월 청소년사목을 담당하는 사제, 수녀, 평신도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연수를 1회 실시한다. 이 연수에서는 제주에 소임받은

수녀들과 새사제들에게 제주교구의 청소년사목 지침과 특징을 공유한다.

#### ➡ 청소년담당 사제연수

매년 10월 청소년사목을 담당하는 사제를 대상으로 청소년사목에 대한 사제들 친교의 시간을 1회 실시한다.

#### ➡ 청소년사목위원장 모임

매년 12월 교구장 사목교서가 발표되면 사목교서 해설과 함께 다음연도 청소년사목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본당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3) 본당 조직

#### ➡ 본당 청소년사목위원회

모든 본당은 교구장의 지침에 따라 ‘청소년사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천제교 2011-056, 2011. 12. 15) 구성의 목적은 구체적인 청소년 사목이 이루어지는 본당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사목이 사제, 수도자에게 제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제, 수도자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능력에 따라 변동되는 청소년 사목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살레시오회 백광현신부가 살레시오회의 이상적인 공동체 모델로 제시한 ‘교육사목공동체’<sup>7)</sup>를 제주교구에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

에서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 사목방문을 통한 평가

아직도 본당 청소년사목위원회는 몇 개 본당을 제외하고는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여 예전에 청소년분과위원에서 해왔던 주일학교 행사 협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사목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은 지역 안에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과 본당의 여건을 분석하고 본당 실정에 맞는 청소년사목을 위한 ‘상황분석’이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본당 ‘청소년사목 목표’(사명선언문)을 도출하여 이 목표에 근거하여 우리 본당 맞춤형 ‘청소년사목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본당은 교구 제출을 위하여 한 사람이 제출형 계획서로 평가절하 시키고 있다. 본인은 우리 본당 상황에 맞는 청소년사목계획서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날이 청소년사목이 성공하는 날이라고 확신한다.

## 2) 교구장 사목보고서로 본 청소년사목 현황<sup>8)</sup>

“전국 교구 평균 미사 참석율은 2014 ~2015년 21.2%이다. 현재 살고 있는 이들은 몇 퍼센트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 신자를 100%로 치면 경험 말고, 확률적으로 얼마라고 보십니까? 자기본당 말고, 교구 전체로 이야기하면 대략 25%정도 미사 참석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 평균은 2년째 21.2%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념해보는 건 판공성사입니다. 약 35%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성당에 나오는 이들을 <미사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체 신자 100명 중에 35명이 판공성사 하는 거죠. 100명 중 21명이 미사 나와요, 그러면 100명 중 매주 나오나요? 모르시죠? 이번에 파악해야 합니다. 100명 중 15~18명이 나오고, 15~35명 중에서 번갈아 나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sup>9)</sup>

우리 교구의 청소년 사목의 상황을 교구장 사목방문시 각 본당에서 제출했던 본당 사목방문보고서 중 전체신자수 / 미사 참석율 / 초등부 현황 / 중고등부 현황을 비교하고 싶다. 청년들의 현황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7) 살레시오회 청소년사목부, 『살레시오 청소년사목-기틀』, 돈보스코미디어, 한국살레시오수도회, 2018.

8) 3년마다 시행되는 교구장 사목방문 각 본당 현황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9) 박문수, 시노드 준비과정과 진행절차 제1차 연수 전문위원 발표문, 대전교구, 2016. 참조.

있지 않기에 여기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각 본당에서 청년회 활동 숫자가 10 ~ 25명 수준이면 지금의 상황은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인이 주목하는 대목은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 청년으로 넘어 가는 과정에서의 감소현상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숫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비율(추세)의 부분을 통하여 각 본당 청소년 사목을 평가해야 할 것 같다.

(1) 보좌신부가 있는 본당

■ 동광본당(2017년 사목방문 보고서)

구 분	남 자				여 자				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본 당	1,284	133	21	1,438	1,582	160	34	1,776	3,214
총계	1,284	133	21	1,438	1,582	160	34	1,776	3,214

구분	특전 (19:30)	새벽 (06:30)	학생 (09:00)	교중 (11:00)	오후 4시 미사	청년 (19:30)	계	총 신자수	참석률
2014	165	115	340	245	-	175	1,040	3,450	30.20%
2015	165	120	330	245	-	165	1,025	3,289	31.16%
2016	165	110	340	220	-	175	1,010	3,300	30.60%
2017	160	115	345	235	-	165	1,020	3,214	31.74%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률 (%)
		남	여	계	남	여	계	
초 등 부	유치부	19	21	40	4	7	11	27.5%
	1학년	10	6	16	3	5	8	50%
	2학년	10	9	19	5	6	11	57.89%
	3학년	8	11	19	12	13	25	131%
	4학년	11	16	27	5	12	17	62.96%
	5학년	10	10	20	6	8	14	70%
	6학년	17	11	28	8	11	19	67.85%
	계	85	84	169	43	62	105	62.13%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률 (%)
		남	여	계	남	여	계	
중 등 부	1학년	16	18	34	9	10	19	55.88%
	2학년	23	12	35	10	7	17	48.57%
	3학년	16	24	40	5	10	15	37.5%
	계	55	54	109	24	27	51	46.89%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률 (%)
		남	여	계	남	여	계	
고 등 부	1학년	25	11	36	7	0	7	19.44%
	2학년	24	28	52	7	4	11	21.15%
	3학년	14	18	32	-	-	-	
	계	63	57	120	14	4	18	10.5%

■ 중앙본당(2018년 사목방문 보고서)

구 분	남 자				여 자				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본 당	837	435	0	1,272	1,152	558	0	1,710	2,982
총계	837	435	0	1,272	1,152	558	0	1,710	2,982

주 일				평 일			
회 수	시 간	대 상	평 균 참례자수	요 일	오 전	오 후	평 균 참례자수
특전(토)	19:30	일반	135	월	95		95
1	06:30	일반	90	화	125	110	235
2	09:00	학생	154	수	112	98	210
3	11:00	일반	348	목	118(06:30) 86(10:00)		204
4	16:00	어린이	98	금	123	95	218
5	19:30	청년	141	토	113		113
6	22:00	일반	48				
계			1,014	참석률			34%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초 등 부	유치부	3	7	10	1	4	5	50
	1학년	10	12	22	3	4	7	31.4
	2학년	10	6	16	1	1	2	12.5
	3학년	8	6	14	5	2	7	50
	4학년	8	5	13	7	3	10	76.9
	5학년	10	8	18	7	3	10	55.6
	6학년	7	10	17	5	2	7	41.2
	계		56	54	110	29	19	48

중 등 부	1학년	9	13	22	2	7	9	40.91
	2학년	6	11	17	6	1	7	41.18
	3학년	13	9	22	3	0	3	13.64
	계	28	33	61	11	8	19	31.15

고 등 부	1학년	17	10	27	6	0	6	22.22
	2학년	14	12	26	2	1	3	11.54
	3학년	14	18	32	3	2	5	15.63
	계	45	40	85	11	3	14	16.47

### 노형본당(2019년 10월 말)

구 분	남 자				여 자				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본 당	1,179	147		1,326	1,577	106		1,683	3,009
총계	1,179	147		1,326	1,577	106		1,683	3,009

구분	어린이 (16:00)	학생 (19:30)	새벽 (06:30)	일반 (09:00)	교중 (11:00)	청년 (18:30)	밤 (21:00)	계	신자수	참석률
2016	175	172	95	164	277	141		1,024	2,969	34.49
2017	158	145	76	161	295	149		984	2,977	33.05
2019 11월	195	160	110	160	265	125	85	1,100	3,009	36.5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초 등 부	유치부	14	11	25	5	9	14	56.00
	1학년	13	12	25	5	2	7	28.00
	2학년	18	10	28	5	7	12	42.86
	3학년	31	12	43	17	10	27	62.79
	4학년	15	25	40	11	5	16	40.00
	5학년	18	21	39	6	16	22	56.41
	6학년	22	18	40	7	5	12	30.00
	계	131	109	240	56	54	110	45.83

중 등 부	1학년	23	22	45	7	8	15	33.33
	2학년	28	20	48	5	5	10	20.83
	3학년	22	25	47	4	2	6	12.77
	계	73	67	140	16	15	31	22.14

고 등 부	1학년	23	19	42	6	6	12	28.57
	2학년	25	28	53	4	2	6	11.32
	3학년	31	20	51	4	2	6	11.76
	계	79	67	146	14	10	24	16.44

### 서귀북자본당(2018년 사목방문보고서)

구 분	남 자				여 자				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본 당	1,150	132	87	1,369	1,428	289	0	1,717	3,086
총계	1,150	132	87	1,369	1,428	289	0	1,717	3,086

주 일				평 일			
회 수	시 간	대 상	평균 참례자수	요 일	오 전	오 후	평균 참례자수
특전(토)	07:30	중고등부,어른	183명	월	06:30		100명
1	06:30	어른	95명	화		07:30	200명
2	11:00	어른	303명	수	10:00	07:30	50명
3	16:00	가족, 어린이	193명	목	06:30		30명
					10:00		30명
4	07:30	어른	102명	금	10시	07:30	30명
							200명
합 계	876	참석률	28.3%	토	06:30		70명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초 등 부	6세반	-	-	-	-	-	-	%
	유치부	13	10	23	3	1	4	17%
	1학년	17	28	42	6	13	19	45%
	2학년	16	10	26	3	5	8	31%
	3학년	14	26	40	10	17	27	68%
	4학년	19	15	34	10	2	12	35%
	5학년	19	24	43	5	14	19	44%
	6학년	18	16	34	15	7	22	65%
계		116	129	242	52	59	111	46%

중 등 부	1학년	10	14	24	6	5	11	46%
	2학년	14	15	29	3	4	7	24%
	3학년	13	21	34	4	0	4	12%
	계	37	50	87	13	9	22	25%

고 등 부	1학년	17	19	36	1	1	2	6%
	2학년	13	15	28	4	5	9	32%
	3학년	19	18	37	2	2	4	11%
	계	49	52	101	7	8	15	15%

(2) 보좌신부가 없는 시내 본당

■ 김기량(2018년 사목방문 보고서)

구 분	남 자				여 자				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본 당	876	503		1,379	1,218	588		1,806	3,185
총계	876	503		1,379	1,218	588		1,806	3,185

구분	어린이 (15:30)	토 (19:30)	오전 (09:00)	교중 (11:00)	오후 (16:00)	청소년 (19:30)	계	총 신자수	참석률
2015년	-	134	130	266	149	157	836	2,900	28.8%
2016년	-	126	149	262	167	144	848	3,028	28.0%
2017년	161	141	138	252	-	149	841	3,035	27.7%
2018년 3월말	121	150	139	254	-	137	801	3,212	24.9%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교적 수에 대한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초 등 부	유치부	31	28	59	4	6	10	17.0
	1학년	15	14	29	6	9	15	51.7
	2학년	13	18	31	5	8	13	42.6
	3학년	13	12	25	10	8	18	72.0
	4학년	23	17	40	13	16	29	72.5
	5학년	24	20	44	5	9	14	31.8
	6학년	20	18	38	9	6	15	39.4
	계	139	127	266	52	62	114	42.9

중 등 부	1학년	19	18	37	7	13	20	54.1
	2학년	22	13	35	7	6	13	37.1
	3학년	17	15	32	2	4	6	18.8
	계	0	0	0	0	23	23	21.2

고 등 부	1학년	22	12	34	3	2	5	14.7
	2학년	19	14	33	1	1	2	6.52
	3학년	10	21	31	5	4	9	29.0
	계	51	47	98	9	7	16	5.1

■ 서문본당(2019년 사목방문보고서)

년	남 자				본당 합계	여 자			
	분리	냉담	열심	소계		소계	열심	냉담	분리
2016	107	533	703	1,343	3,124	1,781	1,091	531	159
2017	120	450	694	1,264	2,904	1,640	1,179	300	161
2018	113	511	667	1,291	2,936	1,645	1,080	395	170
2019	190	471	669	1,330	3,023	1,693	981	466	246

주 일				평 일			
회 수	시 간	대 상	평 균	요 일	오 전	오 후	평 균
어린이(토)	16:00	초등부	57명	일	06:30		50명
토요저녁	19:30	일 반	140명	화		19:30	140명
주일 1	06:30		64명	수	10:00	19:30	130명
2	09:00		134명	목	10:00		80명
3	11:00		264명	금	10:00	19:30	120명
4	19:30	청년,학생	96명	토	06:30		50명
계			755명	참석률		24.9%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초 등 부	유치부	23	18	41	1	2	3	7.3
	1학년	3	8	11	4	1	5	4.5
	2학년	13	10	23	1	6	7	30.4
	첫영성체	15	11	26	11	11	22	84.6
	4학년	15	9	24	5	3	8	33.3
	5학년	8	12	20	5	2	7	35
	6학년	7	8	15	8	3	11	73.3
	계	84	76	160	35	28	63	39.3

중 등 부	1학년	8	6	14	3	2	5	35.7
	2학년	8	9	17	4	3	7	41.1
	3학년	8	14	22		3	3	13.6
	계	24	29	53	7	8	15	28.3

고 등 부	1학년	5	11	16		3	3	18.7
	2학년	13	10	23		2	2	8.6
	3학년	15	15	30	2		2	6.6
	계	33	36	69	2	5	7	10.1

■ 연동본당(2019년 사목방문보고서)

년	남 자				본당 합계	여 자			
	분리	냉담	열심	소계		소계	열심	냉담	분리
2017	8	50	1,136	1,194	2,731	1,537	1,480	49	8
2018	11	86	1,119	1,216	2,790	1,574	1,484	81	9
2019 (10.20)	11	112	1,099	1,222	2,805	1,583	1,481	93	9

주 일				평 일			
회 수	시 간	대 상	평 균	요 일	오 전	오 후	평 균
1(토)	19:30	청년	100	월	35		35
2	09:00	전 신자	150	화		109	109
3	11:00	전 신자	240	수		131	131
4	16:00	어린이	140	목	78		78
5	19:30	중.고등부	120	금		84	84
계	750	참석률	26.7	계	113	324	437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초 미 부	유치부	23	13	36	8	8	16	44.4%
	1학년	6	13	19	6	3	9	47.37%
	2학년	8	12	20	4	7	11	55%
	3학년	15	14	29	11	4	15	51.7%
	4학년	15	13	28	6	7	13	46.4%
	5학년	12	14	26	6	9	15	57.7%
	6학년	9	16	25	4	7	11	44%
	계	88	95	183	45	45	90	49.2%

중 미 부	1학년	14	14	28	7	4	11	39.29
	2학년	9	12	21	2	4	6	28.57
	3학년	11	13	24	5	2	7	29.17
	계	34	39	73	14	10	24	32.88

고 내 부	1학년	18	8	26	1	0	1	3.85
	2학년	19	22	41	3	0	3	7.32
	3학년	21	14	35	1	0	1	2.86
	계	58	44	102	5	0	5	4.90

(3) 시외 본당

■ 중문본당(2019년 사목방문보고서)

구분	남자				본당 합계	여자			
	열심	냉담	분리	소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2016	308	97	0	405	911	404	102	0	506
2017	331	90	0	421	956	439	96	0	535
2018	318	108	0	426	981	427	108	0	535
2019 4.30	293	119	0	412	958	415	131	0	546

주 일			
계	370명	참석률	38.6%

구분	학년	교적상 학생수			출석 학생수			출석률
		남	여	계	남	여	계	
초 등 부	유치부	1	6	7	0	3	3	42 %
	1학년	2	7	9	1	3	4	44 %
	2학년	6	1	7	2	0	2	28 %
	3학년	7	8	15	4	6	10	66 %
	4학년	3	3	6	1	2	3	50 %
	5학년	2	8	10	1	8	9	90 %
	6학년	1	5	6	1	3	4	66 %
초등부 계		22	38	60	10	25	35	58 %
중 등 부	1학년	6	1	7	3	0	3	42 %
	2학년	5	4	9	2	4	6	66 %
	3학년	1	1	2	1	1	2	100 %
	소계	12	6	18	6	5	11	61 %
고 등 부	1학년	5	6	11	1	2	3	27 %
	2학년	4	3	7	1	0	1	14 %
	3학년	3	6	9	0	2	2	22 %
	소계	12	15	27	2	4	6	22 %

■ 모슬포본당(2018년 사목방문보고서)

	남 자				여 자				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본당	163	396		559	178	469		647	1,206

	주 일			평 일			
	시 간	대 상	평 균	요 일	오 전	오 후	평 균
어린이	15:30		61	월	06:30		22
토요저녁	19:30	성인	98	화		19:30	53
새벽	06:30		43	수		19:30	56
교중	10:30		155	목	06:30		23
					(성시간)	19:30	68
				금		19:30	72
계			357	참석률		29.6%	

구 분	학 년	교 적 학생수			출 석 학생수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초 등 부	유치부	15	13	28	5	3	8	28.5
	1학년	2	6	8	1	5	6	75
	2학년	5	2	7	1	0	1	14.2
	3학년	7	6	13	5	6	11	84.6
	4학년	2	9	11	1	6	7	63.6
	5학년	6	7	13	1	6	7	53.8
	6학년	4	5	9	3	1	4	44.4
	계	41	48	89	17	27	44	49.4

구 분	학 년	교 적			출 석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중 등 부	1학년	8	2	10	2		2	20
	2학년	6	7	13	3	3	6	46.1
	3학년	3	6	9	0	3	3	33.3
	계	17	15	32	5	6	11	34.3
고 등 부	1학년	1	1	2				
	2학년	2	7	9		1	1	11.1
	3학년	11	10	21	2	3	5	23.8
	계	14	18	32	2	4	6	18.7

■ 고산성당(2019년 사목방문보고서)

년	남 자				본당 합계	여 자			
	분리	냉담	열심	소계		소계	열심	냉담	분리
2017	36	98	136	270	686	416	195	156	65
2018	32	104	132	268	678	410	195	155	60
2019	29	100	136	265	667	402	194	150	58

주 일				평 일			
회 수	시 간	대 상	평 균	요 일	오 전	오 후	평 균
1	(토) 20:00		60	월	6:30		20
2	10:00	교중(주일학교)	100	화		20:00	40
				수		20:00	20
				목	6:30		20
				금		20:00	25
				토			
계	160	참석률	23.9%	계			125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초 등 부	유치부	2	2	4				
	1학년	0	3	3				
	2학년	1	1	2				
	3학년	4	1	5	2	2	4	80
	4학년	3	1	4	3	0	3	75
	5학년	0	4	4	0	2	2	50
	6학년	2	1	3	1	0	1	33
	계	12	13	25	6	4	10	40

중 등 부	1학년	0	2	2				
	2학년	0	5	5				
	3학년	1	5	6				
	계	1	12	13				

고 등 부	1학년	2	1	3				
	2학년	13	3	16				
	3학년	3	4	7				
	계	18	8	26				

■ 애월성당(2018년 사목방문 보고서)

구분	남 자				여 자				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2018년	137	69	-	206	185	80	-	265	471

주 일				평 일			
요 일	시 간	대 상	평 균 참례자수	요 일	오 전	오 후	평 균 참례자수
토요일저녁	19:30	전신자	39	월	10:00		10
교중	10:30	전신자	126	화		19:30	25
				수		19:30	30
				목	10:00		15
				금		19:30	25
<b>계</b>	<b>165</b>	<b>참석률</b>	<b>35%</b>	<b>계</b>			<b>105</b>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초 등 부	유치부	4	3	7	3	2	5	71
	1학년	2	3	5	2	1	3	60
	2학년	6	1	7	4	0	4	57
	3학년	5	2	7	4	2	6	86
	4학년	4	2	6	4	1	5	83
	5학년	6	6	12	3	3	6	50
	6학년	3	3	6	1	1	2	33.3
	<b>계</b>	<b>30</b>	<b>20</b>	<b>50</b>	<b>21</b>	<b>10</b>	<b>31</b>	<b>62</b>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중 등 부	1학년	2	2	4	1	1	2	50
	2학년	5	4	9	4	3	7	77.8
	3학년	2	7	9	2	4	6	66.7
	<b>계</b>	<b>9</b>	<b>13</b>	<b>22</b>	<b>7</b>	<b>8</b>	<b>15</b>	<b>68</b>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고 등 부	1학년	3	2	5	-	-	-	-
	2학년	1	2	3	-	-	-	-
	3학년	1	2	3	-	-	-	-
	<b>계</b>	<b>5</b>	<b>6</b>	<b>11</b>	<b>-</b>	<b>-</b>	<b>-</b>	<b>-</b>

■ 한림본당(2019년 사목방문보고서)

구 분	남 자				여 자				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열심	냉담	분리	소계	
본 당	609	176	56	841	777	134	71	982	1,823

주 일				평 일			
회 수	시 간	대 상	평 균	요 일	오 전	오 후	평 균
특전(토)	19:30	성 인	160	월	06:30		30
1	10:00	교 중	250	화		19:30	90
2	19:00	청소년	130	수		19:30	100
				목	10:00		50
				금		19:30	80
				토			
계	540	참석률	29.6	계			70

구분	학년	교 적 학 생 수			출 석 학 생 수			출석율
		남	여	계	남	여	계	
초 등 부	유치부	1	2	3	1	1	2	67
	1학년	3	5	8	2	3	5	63
	2학년	4	4	8	2	3	5	63
	3학년	3	5	8	3	5	8	100
	4학년	8	3	11	6	3	9	82
	5학년	16	1	17	10		10	59
	6학년	8	7	15	4	4	8	53
	계	43	27	70	28	19	47	67

중 등 부	1학년	5	4	9	6	3	9	100
	2학년	5	4	9	2	3	5	56
	3학년	6	7	13	6		6	46
	계	16	15	31	14	6	20	65

고 등 부	1학년	12	6	18	5	4	9	50
	2학년	7	1	8	4	0	4	50
	3학년	7	11	18	0	2	2	11
	계	26	18	44	9	6	15	34

### 3. 청소년사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 1) 세계가톨릭 교회 : 보편 교회와 각 지역 교회의 청소년 사목 기본틀<sup>10)</sup>

	보편교회	미국교회	라틴아메리카교회	아시아교회
비전	청소년이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	청소년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을 지속하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사명(예언직, 사제직, 왕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청소년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깨달아 자신의 삶과 교회와 세상에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는 주체가 되는 것	청소년이 그리스도를 따라 아시아의 현실에 육화하는 복음의 주체가 되는 것
구성요소	총체적 개념의 복음화 요소 - 청소년에 대한 사목자의 이해와 대화 및 사랑의 통교 - 개인적 마음의 귀의 - 복음말씀:설교 - 전통적,교의적,체계적 교리교육 - 교회전례 및 성사 참여 - 공동체 친교의 생활 참여 - 사도직 활동	포괄적 특성의 구성요소 - 사목적배려 - 옹호 - 복음화 - 교리교육 - 기도와 전례 - 공동체생활 - 지도력 개발 - 정의와 봉사	현실 중심의 귀납적 과정 - 현실 관찰, 파악, 이해 - 관찰한 현실을 그리스도적 가치로 식별하기 위한 기도, 성경 묵상, 교회공동체의 성사 - 다시 현실로 돌아가 공동체에 참여하고 일함으로써 그 현실을 변화시킴.	공동체 일치 중시 -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 -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 문화와 대화 -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 하고 사회정의를 추구 하는 삶의 대화
전략	[세계 청소년의날] 1. 비전의 지속적 공유 2. 국제적/지역별교회의 축제 - 교회의 일치와 연대 체험 - 청소년참여, 양성초대 - 청소년 사목 조직화	1. 청소년사목 지침서 보급 2. 청소년사목 전담기관 설치(NFCYM) - 비전공유, 소통및교류 - 청소년사목 조사 및 연구 3. 평신도 청소년사목 전문가 양성	1. 실제실천을 위한 '조직화' - 관찰 판단 실천 평가 방법론 - 분당/지역/교구/국가/대륙 조직화 2. 청소년투사(또래리더) 양성 - 청소년이 부르심을 깨닫게 함 - 조직의 리더는 청소년, 성인사목자는 동반	1. 대화와 협력, 연대의 장 - 아시아청소년모임, 아시아청소년대회, 청소년사목자회의 등 - 대화/식별/실행방법론 2. 청소년 사목 전담기관 설치 - FABC 평신도국 '청소년 데스크' - 대륙 전체 조직 체계화 진행중

10) 조재연, 『청소년 사목의 현실과 전망』, 미래사목총서 04, 2009, 137쪽.

## 2) 한국가톨릭 교회<sup>11)</sup>

### ■ 가톨릭 청소년 성취포상제도(인천교구)

- 주일학교 제도 개선과 사목대안에서 출발
- 청소년들이 기본(주일학교 참여 및 능동적인 미사 참례), 도전(교리 및 성경 읽기 필사), 봉사(교회 내외의 다양한 행사)활동의 각 단계별 과제를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제가 어우러진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회 내 포상 프로그램

### ■ Pess 프로그램(대전교구)

#### 교육목적

- 우리 청소년들이 전인적인 성장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우리 청소년들이 당당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 부모님들이 올바른 자녀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영성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 교육내용

- 자아의식 : 자신과의 만남
- 친교의식 : 이웃과의 만남(대인관계 리더십)
- 생명의식 : 자연과의 만남(자연법칙을 바탕으로 한 원칙 중심의 리더십)
- 존재의식 : 사물과의 만남
- 역사의식 : 시대와 사건과의 만남

### ■ 삼덕 젊은이성당(대구대교구)

#### 비전

교구의 젊은이들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가운데 하나인 30~40대 젊은이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성당을 만들어 대구대교구뿐 아니라 한국교회에 '청년사목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천 전략으로 '삼덕 젊은이 본당'은 크게 ①청년들의 복음화, ②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 ③선교를 선택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비전하에 기존의 청년 프로그램들을 일관성 있게 배치하여 청년들에게

11) 천주교 의정부교구 사목연구소, 『한국교회 청소년·청년사목의 미래찾기』, 천주교의정부교구, 2017.

참여를 권장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구성하였다.

- 1단계 : 뿌리 찾기(선택, 리더십, 애니어그램)
- 2단계 : 말씀의 기초 다지기(성경 통독)
- 3단계 : 말씀의 거름주기(청년성서)
- 4단계 : 기도하기(젊은이 성령세미나, 떼제기도모임)
- 5단계 : 봉사하기(성당 주변 무료급식소 배식, 새터민 봉사, 다문화 가정 연계)

### **연령 통합 사목**

삼덕 젊은이 본당은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60대 이상의 노인신자들은 많은 반면 어린 자녀를 둔 40~50대 신자들은 적어 어려움이 있다. 주일은 외부에서 오는 청년들 덕에 붐비지만 주중의 본당운영은 젊은 사람이 적어 어려움이 많다. 이에 통합 사목을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 청소년 친화적인 본당 무악재성당(서울대교구)**

청소년·청년사목은 어린이·청소년사목과 마찬가지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본당 전체 사목의 포괄적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본당은 세대 상호 간 접촉을 위한 이상적인 사목의 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본당이 본당 사목 프로그램에서 연령층을 분리하여 청소년·청년들이 청소년·청년 그룹 외 다른 신자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본당에서는 본당 내 모든 연령층이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제안된 청소년·청년 친화적 본당 건설을 위하여 성인 공동체를 먼저 형성하고 청소년·청년을 도울 성인을 양성하는 것은 청소년·청년사목 초기과정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성인들이 단단하고 폭넓은 지원 토대를 청소년·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뒤따르는 모든 과정을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 **발전단계**

- 아름다운 전례
- 15분 다과회(청년용)
- 또래를 한꺼번에 초대하는 수험생을 위한 미사와 고3 MT

### **훈련의 단계 : 신앙공동체 맛들이기**

- 공동체 모임과 신앙교육이 함께 있는 훈련 : 전체 청소년·청년 대상
- 리더 그룹의 조직화
- 핵심사도 양성

파견의 단계 : 하느님 맛들이기

청소년·청년사목의 촉진제 : 공동체 축제

###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청년성서모임

2016년 현재 회관 리모델링 후, 공간이 협소해져 제한적으로 그룹원을 모집하고 있다. 매학기(3월, 9월) 20그룹(약 160명), 매년 40그룹(약 320명)이 그룹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그룹공부는 월~금 평일 저녁 7시~10시까지 교육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룹공부는 창세기와 탈출기 40%, 마르코와 요한 60% 정도 비율이다. 대상은 주변지역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 나이와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그룹의 나이는 대부분 30~40대이다. 지도신부와 운영진 7명이 함께 운영하고 가능한 지도신부의 관여를 줄이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자발적 그룹모임을 하는 것 이외에 후속모임은 없다.

#### 긍정적 평가

- 원하는 시간에 퇴근 후 공부할 수 있다.
- 교통의 편의성(늦은 귀가 가능)
- 장소의 여유로움(많은 그룹을 소화할 수 있다.)
- 나이 제한 없음
- 영적가치

직장인이 대부분이며 본당 안에서 상처받아 온 청년들, 외국 살다 와서 연고가 없는 청년들이 많이 나온다. 사회에 찌들여 있는 청년들이 복음의 가치나 영적 가치보다는 사회의 가치를 쫓아 살다 성서공부를 하며 영적인 이야기, 내면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며 행복해 한다.

- 제한적 활동

본당과 다르게 지속적인 활동은 부담스럽고, 짧게는 4~5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의 매력.

### ■ 메리워드 청년 공간(예수 수도회)

- 소재지 : 노량진
- 시작 : 2016년 설
- 배경 :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보고 시험에 떨어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와 상담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공간을 마련. 예수수도회 한국진출 50주년 기념으로 시작되었다.

### 3) 제주교구의 고민과 논의들

#### ■ 제91차 사제평의회(2011년 3월 9일)

##### I. 소공동체 운동과 초,중,고,청년 사목의 실태와 개선방안

- 1) 본당 주일학교에 관한 2011년 3월 교구 사목평의회와 사제평의회 보고에서 한결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PESS 프로그램이 많은 본당에서 시행 후 중단상황에 있다. 이는 학교에서 매일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안에서 이루어지는 본래의 PESS 프로그램이, 본당 주일학교에서 주1회 시행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고 있다.
- 2) 본당 주일학교의 어려움이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혹은 본당 주일학교 시스템의 문제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2011년 주일학교 및 청년 사목 현황을 참조해보면 시스템의 문제 또한 제기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 사목국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현재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쇄신을 위해 부모들의 관심과 본당 공동체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3) 본당 주일학교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해 볼 수 있다.(예, 틴스타 등)
- 4)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상적인 사목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현실상황에서 이상적인 사목이 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용 PESS 프로그램을 본당 주일학교용으로 보완하는 작업을 들 수 있다.

##### 결론)

- 1) 각 본당에서 성직자, 수도자, 교리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본당 청소년 사목위원회를 만들고, 교리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연계한다.
- 2) 교구 청소년 사목위원회에서 지역교회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 3) 본당 교리교육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법들, 예를 들면 보좌신부의 주일학교 사목적 지위를 보장하거나 혹은 본당에서 청소년을 위한 적정한 예산의 안배에 관해 (제92차) 사제평의회 의제로 삼는다.
- 4) 가정미사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 본당마다 상황이 다르고 청소년의 포래 집단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가정 안에서 구성원들이 따로 지내는 상황에서 가정이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긍정적인 의미는 지속되어야 한다.

## ■ 제92차 사제평의회(2011년 7월 27일)

### I. 주일학교 시스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론

- 1) 청소년 사목위원회 위원장(김석주 신부)으로부터 교구 청소년 사목 현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제출자료 참조
- 2) 보좌신부의 짧은 임기로 인해 ‘전면적인 청소년 사목은 본당신부가 맞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지만, 본당신부에 비해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짧은 임기이지만 교구 내에서 공통된 청소년 사목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청소년 사목이 필요하다.
- 3) 이런 이유로 본당마다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교리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예산을 세부적으로 정해 보좌신부와 본당 청소년 사목위에서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보좌신부에게 청소년 사목관련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시서부지구). 그러나 균형있는 “예산지침”도 필요하다(시동부지구).
- 5) 본당 예산에서 자선비와 같이 청소년 관련 예산의 최저선은 정해야 한다. 하지만 본당마다 살림살이가 달라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 결론)

- 1) 교구내 모든 본당은 예외 없이 본당 청소년 사목위원회를 신설한다.
- 2) 교구 청소년 사목위원회에서 (가칭)“청소년 사목지침서”를 준비한다. “청소년 사목지침서”는 보좌신부들이 본당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청소년 사목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일학교 예산 및 본당 청소년 사목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교구에서 본당마다 공통된 청소년 사목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구 청소년 사목위원회에서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한다.

## ■ 제94차 사제평의회(2012년 4월 18일)

### I. 주5일 근무에 대한 사목방안

- 1) 교구차원에서 청소년 사회봉사 인증기관 마련이 필요하다.
- 2)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리교육과 연계해야 한다.
- 3) 동아리 중심 혹은 포래집단으로 청소년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필요하면 지구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4) 지역사회에서 문화학교를 유치하여 치유와 영성 프로그램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 5) 각 본당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주일학교 운영이 힘들면 속인적 본당의 모습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 6) 본당 내에서만이 아니라 지구별로 청소년 센터와 같은 공간적인 준비도 함께 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톨릭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형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

- 1) 주5일 근무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발전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주일학교 교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 2) 각 분야의 전문가(상담/교육/교리교육 등)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사목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하도록 한다.

■ **제95차 사제평의회(2012년 7월 11일)**

**결론)**

청소년 사목위원회에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교리교육 자료를 준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는 먼저 교구에 청소년 법인설립을 준비하고, 이후 계획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 **교구장 공문(천제교 2011-056, 2011. 12. 15)**

92차 사제평의회(2011.07.27)의 합의에 따라 청소년 사목과 관련된 새로운 시행 규범과 견진교리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여 보내드립니다.

**1. 모든 본당은 ‘청소년사목위원회’ 구성을 한다.**

1) 필요성

- 구체적인 청소년 사목이 이루어지는 본당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 청소년사목이 사제, 수도자에게 제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기 위하여
- 사제, 수도자들의 개인적인 관심과 능력에 따라 변동되는 청소년 사목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 2) 구성(본당 실정에 맞게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당연직(임기 중)
    - 주임신부, 보좌신부, 담당수녀, 청소년분과 위원장, 주일학교 교감(교무),
    - 자모회장, 성소후원회장 등
  - 임명직(3~5년 : 주임신부가 관심 있는 교우를 임명한다.)
    - 청소년관련 종사자, 심리상담사, 학부모 등
  - 청소년, 청년 : 옵서버(observer)형식으로 참여가 필요하다.
- 3) 근본과제
  - 청소년들의 상황과 환경을 본당 실정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한다.
  - 본당 현실에 맞는 청소년사목계획을 작성한다.
    - (기획력 있는 한 사람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참여한다.)

## 2. 청소년 사목에 관련된 예산 문제

- 1) 2012년부터 변경된 청소년사목비 항목에 적절히 반영한다.
- 2) 이 항목을 보좌신부들이 전결권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3. 보좌신부, 담당수녀

- 1) '청소년담당사제', '청소년담당수녀'라는 명확한 직함을 준다.
- 2) 청소년사목과 관련된 위치와 권한을 배려한다.

## 4. 교리실 확보 및 청소년 공간 마련

- 1) 안정된 교리교육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교리실을 배정한다.
- 2) 청소년들의 공간을 마련한다.

## ■ 교구장 공문[천제교 2013-035, 2013. 05. 09]

### 1. '재단법인 제주 가톨릭 아동 청소년회' 설립

'재단법인 제주 가톨릭 아동 청소년회'가 설립 되었습니다. 신부님들께서는 불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 '청소년 주일' 2차 헌금

5월 마지막 주일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주일에 2차 헌금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97차 사제평의회(2013. 3. 20)에서 청소년 법인의 재원 마련과 목적 사업을 위하여 2차 헌금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부님들께

서는 교우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봉헌된 2차 헌금은 6월 5일(수)까지 관리국으로 보내주십시오.

## ■ 교리교육 커리큘럼

### 제주교구 진행과정

- ① 2011년 사제평의회를 통해 청소년 사목에 관한 부분을 논의.
- ② 각 본당 교사 설문지 조사 후, 논의를 거쳐 교구커리큘럼 마련 결정.  
교리연구모임 가동하여 커리큘럼 완성
- ③ 교재 결정 : 2011년 청소년사목자연수에서 투표로 결정
  - 초 등 부 - 서울대교구 교재
  - 중고등부 - 교구 자체 교재 제작(매주 발행 - 유인물 형태)→ 현재 일부 본당에서 사목적 차원에서 부산교구 교재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교사들의 문의가 있어 커리큘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결정사항

1. 기본틀은 교구에서 마련한 커리큘럼을 유지한다.  
단, 행사 등으로 인한 교리시간 부족과 체험 활동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한 달에 2번 교리중심의 중심학교를 운영하도록 한다.  
나머지 시간은 본당 프로그램과 문화체험을 적극 권장한다.  
변경된 내용은 2015년 커리큘럼에 반영한다.

### 교구장 권고사항

- 주입식 교육 탈피하여 실천과 체험 위주의 교육 시행
- 평화, 인권, 생태, 역사 등의 사회교리 시행

## 중2 커리큘럼

월	일	전례력	주제	행사
3	3	연중 제8주일	【본당】 새로운 시작	개학식
	10	사순 제1주일	【본당】 자체프로그램	
	17	사순 제2주일	【교리】 고해성사를 통한 새로운 탄생	
	24	사순 제3주일	【본당】 4.3을 기억하며	4.3유적지방문
	31	사순 제4주일	【전례】 십자가의 길	부활판공성사
4	7	사순 제5주일	【교리】 생명윤리	
	14	주님수난성지주일	【전례】 성지주일	
	21	주님 부활 대축일	【본당】 부활대축일	
	28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교리】 예수님의 부활	
5	5	부활 제3주일(생명주일)	【문화】 생명의 문화 - 성교육	
	12	부활 제4주일	【본당】 성소주일	
	19	부활 제5주일	【본당】 자체프로그램	체육대회 준비
	26	부활 제6주일 (청소년주일)	【본당】 청소년체육대회	
6	2	주님승천대축일 (홍보주일)	【사회】 세계화와 문화다양성 1	
	9	성령강림대축일	【사회】 세계화와 문화다양성 2	
	16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본당】 자체프로그램	
	23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	【교리】 성체성사를 통한 나눔의 신비	
	30	연중 제13주일 (교황주일)	【본당】 자체프로그램	
7	7	연중 제14주일	【교리】 공정무역	
	14	연중 제15주일	【본당】 여름신앙학교 준비	
	21	연중 제16주일 (농민주일)	【본당】 여름신앙학교	방학식
	28	연중 제17주일		
8	4	연중 제18주일		
	11	연중 제19주일		
	18	연중 제20주일		
	25	연중 제21주일		

월	일	전례력	주제	행사
9	1	연중 제22주일 (피조물의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본당】 하느님 창조 목적을 알 수 있는 자연 탐방	
	8	연중 제23주일	【사회】 평화이야기	
	15	연중 제24주일	【휴강】 추석연휴	
	22	연중 제25주일 (성김대건안드레아사제 와 정하상바오로와 동료순교자들 대축일)	【교리】 한국의 순교자들	
	29	연중 제26주일	【사회】 환경과 기후변화 1	
10	6	연중 제27주일 (군인주일)	【사회】 환경과 기후변화 2	
	13	연중 제28주일	【교리】 세상의 복음화	
	20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주일)	【본당】 전교주일	
	27	연중 제30주일	【교구】 교리교사의 날	
11	3	연중 제31주일	【사회】 세계의 빈곤 1	
	10	연중 제32주일 (평신도주일)	【사회】 세계의 빈곤 2	
	17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본당】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기념	
	24	그리스도왕대축일 (성서주간)	【교리】 성서속의 나의 인생	
12	1	대림 제1주일	【사회】 평화의 도구	
	8	대림 제2주일 (인권주일)	【사회】 세계인권선언문	사회교리주간
	15	대림 제3주일 (자선주일)	【본당】 성탄행사 준비	성탄관공성사
	22	대림 제4주일	【본당】 성탄행사 준비	방학식
	29	성가정 축일		
1	5	주님공현대축일		
	12	연중 제2주일		
	19	연중 제3주일		
	26	연중 제4주일		
2	2	연중 제5주일		
	9	연중 제6주일		
	16	연중 제7주일	【본당】 수료식	
	23	연중 제8주일		

■ 청소년 견진교리

□ 진행과정

- 2006년 : 6개 본당(중앙, 동광, 서귀포, 연동, 광양, 동문)
  - ☞ 대부모의 자질문제, 교리교재 및 횡수 통일 되지 않음
- 2007년 : 7개 본당 127명(중앙, 광양, 동광, 동문, 연동, 서문, 서귀포)
  - ☞ 교리교재 미비, 견진장소 재고, 피정기간 재고
- 2008년 : 9개 본당 154명
  - ☞ 견진피정(2박 3일로 변경), 장소(젊음의 집으로 변경)
- 2009년 : 9개 본당 190명
  - ☞ 제주교구 학생견진교재 발행(견진교리 10-12시간 통일)
- 2010년 : 15개 본당 284명(초등부 졸업반 포함)
  - ☞ 견진장소(삼위일체대성당으로 변경)
- 2011년 : 12개 본당 143명(초등부 졸업반 제외)
- 2012년 : 11개 본당 206명
- 2013년 : 14개 본당 184명
- 2014년 : 16개 본당 239명
- 2015년 : 20개 본당 245명
  - ☞ 제주교구 제작 견진교재 절판됨. 2016년 교재는 대구대교구 교재 사용.

□ 청소년 견진교리교육 변경 내용

- 견진교재 변경(제주교구 → 대구대교구)
  - ☞ 제주교구 교재 절판(다시 제작하지 않고 대구대교구 교재 사용 결정)
- 교재변경에 따른 교리시간 변경

제주	대구대교구
10~12시간(예식 포함)	22~25시간(예식포함)

- 견진교리 시간 변경에 따른 중 1 교리교육 진도표 변경
  - ① 겨울방학 기간 동안 22~25시간의 견진교리를 시행하기가 불가능
  - ② 중 1 교리교육 진도표 변경을 통하여 단기간의 시간적 부담감 해소.
  - ③ 중등부로 진학하는 청소년들에게 교리기간의 공백기를 없앤다.
    - ☞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발생하는 주일학교 이탈현상을 방지한다.
    - 부모들에게 견진교리교육과 연결시켜 홍보한다.

④ 교리교육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 교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개념에 따른 청소년 사목 이해

### 1) 청소년<sup>12)</sup>

청소년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 즉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아동기를 마치고 성인기에 미치지 않은 연령의 사람 혹은 집단”을 뜻한다. 청소년기를 뜻하는 서양어 adolescence ‘성숙하다’ 또는 ‘자라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adolescere 에서 유래했는데, “청년기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아동이 한 사람의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청소년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시기’로 정의 된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미성년자 출입 금지’의 분위기가 강하고, 중고등학생을 연상한다.

### 2) 사목<sup>13)</sup>

#### (1) 용어적 의미

우리나라 말에 사목과 사업은 같은 ‘사’자로 시작하나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목과 사업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목의 출발점에서부터 문제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된다. 스쳐가는 생각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천이 부족해서 청소년사목의 참담함을 고민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 사목, 사목자, 교리교육, 교리교사라는 개념과 용어에 대한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성찰의 빈곤함에서부터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그러다보니 어떤 케리그마(복음선포)가 되었는가에 예민해지는 것 보다 몇 명이라는 결과에 예민하게 되었다. 그 실적을 쌓아가기 위해 교리교사, 사목자는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각 본당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신앙학교, 캠프 등을 생각해 보라.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

12) 노우진, 같은 책, 25쪽 참조.

13) 노우진, 같은 책, 25쪽 참조.

나 왜 모였는지에 대한 목표와 그 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사목이 아닐까?

사목은 어원적으로 목자(Pastor)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목자라는 신원은 양떼와의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 이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는 친교의 관계이며, 이 친교는 인격적인 사랑과 자유 그리고 상호 신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목은 사목자 한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되고 실행되었다. 그 개념도 ‘지도하는 것’, ‘이끄는 것’, ‘이끄는 사람에 의해 성화되는 것’을 의미했고, 사목자의 활동, 특히 성사적 활동에 대한 이해에 축소되었다.

##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① 사목은 하느님과의 친교를 토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상호간의 온전한 일치와 하느님 나라를 향한 인간 사회의 변모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② 사목은 세상과 현대인을 위한 전체 교회의 책무이며, 단순히 사제로 대표되는 사목자들의 활동만이 아니라 전 교회의 활동이다.
- ③ 사목은 교회와 현대 세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

## 3) 청소년 사목

### (1) 청소년사목의 대상

- ① 청소년사목의 대상은 청소년 사목자가 자신의 사목지에서 만나는 수많은 청소년,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양식을 가진 청소년들이다. 단지 입시경쟁의 피해자나 보호 대상자인 14~18세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청소년들이다.
- 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자기실현 행위이자 책무이며, 인격적 만남과 관계이다. 이것은 친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 ③ 사제들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청소년 사목 주체가 된다. 특히 청소년이 청소년사목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천명한다.

#### 4) 청소년 사목의 장

성당, 교리실 만이 아닌 청소년들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라고 할 수 있다.

### 5. 복음적인 청소년 사목을 위하여

#### 1) 공동체의 회개와 기도<sup>14)</sup>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들만의 관심이 청소년사목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성찰이 필요하다.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 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무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이다. 청소년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한 무관심은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에 대한 무관심이다. ‘회개’와 ‘기도’가 없는 사목은 사업으로 전락한다. ‘회개’와 ‘기도’가 함께하는 청소년사목은 출석률에 낙담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 2) 청소년사목은 마음의 일이다.<sup>15)</sup>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마음은 행동의 원천이고, 행동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청소년사목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청소년사목에서 강압적이거나, 권위적, 제도적 태도와 분위기로 사목하는 것을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 청소년사목은 감정, 의지, 사랑 등의 마음의 일이다.

#### 3) 청소년을 선택하는 것은 공동체의 우선적인 일이다.<sup>16)</sup>

청소년사목에서 청소년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목정책과 방향 설정시에, 교회와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사목자들의 기도 안에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

14) 노우진, 같은 책, 36~37쪽 참조.

15) 노우진, 같은 책, 38~39쪽 참조.

16) 노우진, 같은 책, 39쪽 참조.

4) 청소년 인권 존중의 분위기에서 교육하고 사목해야 한다.

5) 복음적인 교리교사와 사목자를 양성해야 한다.<sup>17)</sup>

교리교사 양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소질과 능력(교리교육 총 지침 제235항)을 배양하는 것이다.“하느님 말씀의 전달자인 교리교사는 전통교리를 알 뿐아니라 일반 학문에도 조예가 깊은 성숙한 신앙인이어야 한다. 잘 준비되고 훈련된 만큼 교리교육의 대상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 천주교 교리교육지침, 제58항)

6) 교리교육은 신앙고백으로 인도되어야 한다.<sup>18)</sup>

교회는 “교리교육은 신앙고백에 그 기원을 두며, 신앙 고백으로 인도한다.”(교리교육 총 지침, 제82항) 이는 교리교육이 단순히 문자나 문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신앙을 전달하여 전인적인 신앙 고백을 유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회의 신앙 고백을 전달해 주는 교리교사의 영성은 자신들의 신앙을 통해 또 다른 신앙 고백을 낳게 한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교리교육은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다. 신앙 전달의 노력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 복음 선포(케리그마)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1차인 교리교육은 강론이다.

7) 교리교육은 복음의 이중성격을 초월해야 한다.<sup>19)</sup>

복음은 구체적인 문화 안에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복음은 특정한 문화에만 제한되거나 예속되지 않는 초문화적인 것이다. 교리교육은 이중성격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시대마다 해결되어져야 할 중요한 숙제이다. 결국 기성세대들이 새로운 세대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간격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구조와 시스템, 투자를 해도 답은 “현재와 같이 영원히”이다.

17) 정신철, 『교리교사의 영성』, 돈보스코미디어, 2012, 6~9쪽 참조.

18) 정신철, 『교리교육의 역사』, 돈보스코미디어, 2015, 9~15쪽 참조.

19) 정신철, 같은 책, 11쪽 참조.

## 미래를 희망하며(마무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경전의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느님 ‘말씀’의 종교다. 그 말씀은 ‘글로 된 무언의 말이 아닌, 사람이 되시어 살아 계신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죽은 문자로 머물지 않으려면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성경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8항).

교육(Education)은 밖으로(Ex) 끄집어내다(ducare)에서 파생된 말이다. 교육은 지식을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끄집어 삶의 자리에서 살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교리교육은 죽은 문자를 청소년들에게 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학자들처럼 문자 안에 갇혀 있다. 진정한 교리교육은 어려운 상황과 현실 안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희망의 출발점이고 부활의 과정임을 공동체 체험을 나누어 주고, 그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사실은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교리교육은 마음의 일이다.

마음의 일은 포기할 수 없다. 이 시대 청소년사목의 가장 비극적인 단어는 ‘포기’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로마 8, 25)이다”<sup>20)</sup>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20) 강우일 주교, 제2차 한국청년대회 폐막메시지, 2010.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루카 15, 4-10)

### **[발표자 개인적 생각들]**

1. 청소년사목의 큰 걸림돌 : 사목자 개인적 사고와 판단  
    ➔ 복음적이고 사목적인 사고와 판단
2. 청소년사목 키워드 : 환영, 존중, 동반, 공감, 시야
3. 교리교사 양성 키워드 : 확인, 연구, 나눔, 공유
4. 교리교육의 키워드 : 복음적 언어, 공감언어, 생활언어

### **[토론 주제]**

1. 우리 공동체는 청소년과 젊은이에게 어떤 관심을 보였는가?  
    ➔ 개인적인 관심이 아닌 공동체가 보였던 관심을 나누십시오.  
    ➔ 대상을 복수가 아닌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환영, 존중, 동반, 공감, 시야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누십시오.
2. 우리 공동체는 청소년과 젊은이에게 어떤 관심을 보일 것인가?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결심을 나누십시오.  
    ➔ 대상을 복수가 아닌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첨부자료]

### ■ 제주교구 청소년사목 목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생명과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3차 임시총회 시노드 최종보고서, 31항 참조) 그리고 교회 내에만 머무는 것을 탈피하여 가장 약하고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를 기억하고 동반(함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동반(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야 하고, “교육은 마음의 일”이라는 돈 보스코 성인의 말씀처럼 마음을 열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들과 시선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더욱 더 사랑받아야 할 ‘가난하고 버림받고 위험에 처한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그들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은 중요한 복음적 사명으로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1.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문화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그들을 동반(함께)해야 합니다.
2.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정의, 평화, 인권, 생명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교리, 실천교리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그들의 시야를 넓혀 주어야 합니다.
3. 학교 밖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동반(함께)해야 합니다.
4.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부모들이 가정공동체에서부터 영적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가정복음화에 관심을 갖고 교육해야 합니다.
5.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 친화적인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생동감이 있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 ■ 제주교구 청소년사목지침의 기본 원칙

### 1 청소년사목의 책임자

- 청소년신앙생활의 1차적 책임자 : 부모
- 청소년사목의 책임자 : 주임신부
- 청소년사목의 협력자 : 보좌신부, 전교수녀, 교리교사

### 2 청소년사목의 대상

- 신앙여부, 재학여부, 취업여부, 결혼여부 등과 관계없이 35세까지의 모든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다.
-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40세까지의 젊은이들도 사목적인 판단에 따라 청소년사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 청소년사목의 조직

- 교구 : 청소년사목위원회
- 본당 : 청소년사목위원회
- 법인 : 재단법인 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 4 청소년사목과 가정

- 가정은 성장과정의 아이들에게 점진적 교육과 교리교육을 통해 그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교육하는 공동체이다.
- 가정은 자신의 소명을 식별하고 정의와 사랑으로 인간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공동체이다.

### 5 청소년사목과 속지주의

- 청소년사목은 교회법에 따라 속지주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단, 청소년기 발달단계 중 일정한 시기에 또래끼리 어울리는 특성이 있으므로 속인주의 신앙생활에 대한 사목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 6 청소년사목과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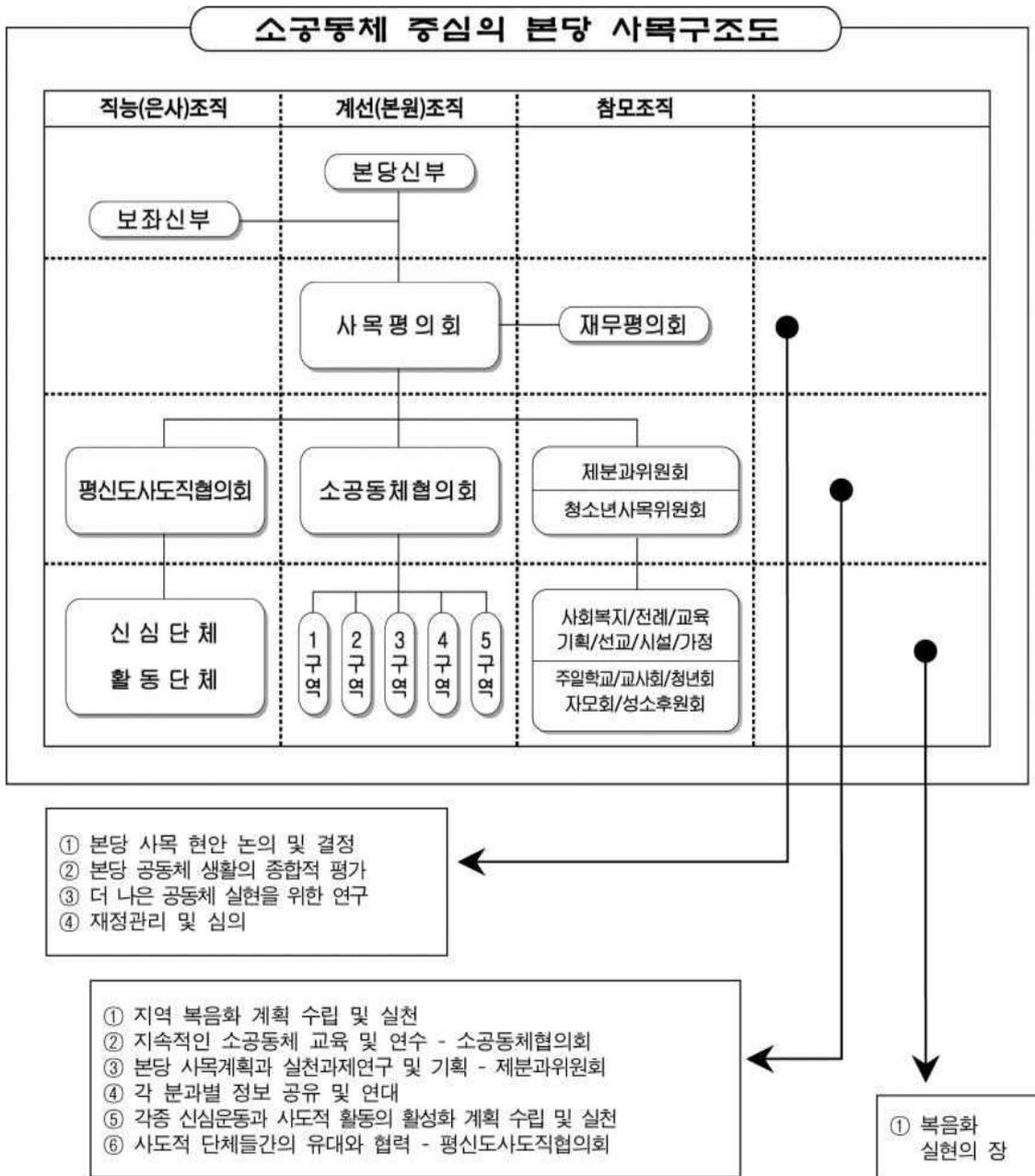
- 지도자(하느님의 길로 인도) : 주임신부, 보좌신부, 전교수녀
- 관리자(사목조직을 위임받아 관리) : 보좌신부, 전교수녀
- 조정자(공동체와 관계를 조정) : 청소년사목위원장(원)
- 동반자(교리교육 직무 수행) : 교리교사

## 7 청소년사목과 인권

-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른 청소년사목
-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청소년사목
- 다문화가정 청소년사목
- 학교 밖 청소년사목

### ■ 제주교구 본당사목구조 안에서의 청소년사목위원회

본당 사목구조는 구체적인 하느님 백성의 삶의 현장이자 교구 사목의 중심으로서, 교회의 본질인 친교와 일치와 공동체를 구현함은 물론 그 지역사회에 복음화를 부각시키는 데 앞장서 봉사하여야 한다(희망을 안고 하느님께, 교회운영 28항 참조). 이에 기존 제주교구 본당 사목구조인 기능중심의 중앙집중식 사목구조에서 평신도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며 하느님 백성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연대의식과 책임을 갖고 복음적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본당 구역반 소공동체 중심의 사목구조로 개편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본당 청소년사목계획서 작성**

“청소년 사목이 개인 또는 소수의 집단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희에서 벗어나고, 평가 없이 타성에 젖거나 자동적으로 사목활동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 공동체의 물적·인적 자원의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계획 수립은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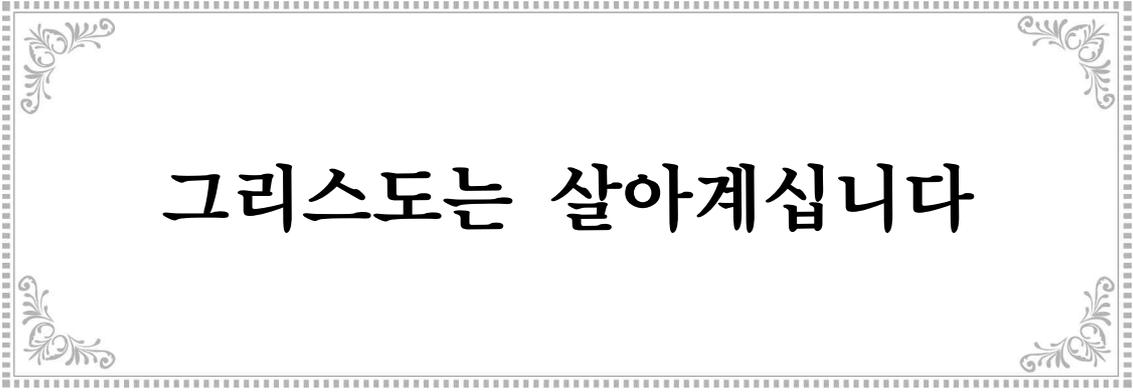
- 제주교구 청소년사목자연수(2011. 3. 28. 백광현 신부)

**【참고사항】**

- ① 청소년사목계획서는 청소년사목위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수립한다.
- ② 청소년사목계획은 본당의 현실과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 ③ 청소년사목계획은 실현 가능한 것을 우선으로 수립한다.(장·단기 계획 수립)

양 식	절 차	문 헌
<p><b>비전설정</b> 전망하고 꿈꾼다. 【보고 판단하는 단계】</p>	<p><b>1단계 : 비전나눔</b> (vision sharing) 관련 문헌을 공부하고 현실을 정확히 파악·분석하는 것은 비전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p>	<p><b>비전선언문</b> (vision statement) <b>사명선언문</b> (mission statement) 선언문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작성되어야 한다. (5-10년간 유효)</p>
<p><b>우선순위 설정</b> 사목적 요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응답 할 것에 초점을 맞춘다 【행동하는 단계】</p>	<p><b>2단계 : 프로젝트 작성</b>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하면서 우선적인 목표를 결정하는 토대를 마련한다.</p>	<p><b>청소년사목계획 작성</b> · SWOT 분석 · 우선목표(10가지 이내)</p>
<p><b>조직구성</b> · 인적 자원 파악 · 예산 파악 및 확보</p>	<p><b>3단계 : 프로그램화</b>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과 자원을 조화롭게 편성한다.  【청소년사목계획에 대한 평가】</p>	<p><b>연간 프로그램 작성(1년)</b> · 활동이나 전략의 순서 · 책임자 선정 · 필요한 자료 수집 · 시간표 작성 및 공유 · 시장조사 및 예산안 작성 · 조직표 및 업무 분담 · 연간 일정표 및 작성</p>





#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현문일 신부



#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Christus vivit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젊음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젊게 되고 새로워지며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따라서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 젊은이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시며 여러분에게 생기가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1항)

## 1.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교종 후속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 십니다」가 나오기까지

프란치스코 교종은 3월 25일 월요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을 맞아 로레토 성지를 방문해 미사를 집전하시고, ‘산타 카사’(Santa Casa, ‘거룩한 집’, ‘성모님의 집’) 성당에서 주교 시노드 후속 교종 권고에 서명하며 동정 마리아의 보호에 의탁했다. 교종께서는 이 성지가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육화하신 그 신비를 관상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묵과 신심의 오아시스”를 찾아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순례자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찾아 간다며, 로레토의 이 거룩한 집을 젊은이, 가정, 병자들을 위한 집으로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곳이 젊은이들의 집으로 불리는 이유는 동정 마리아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시며, 그들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소명을 찾을 때까지 동행하시기 때문”이라고 교종께서 설명했다. 이것이 젊은이 관련 주교시노드 후속 교종 권고를 로레토에서 하기로 결정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 문헌은 지난 2018년 10월 “젊은이, 신앙 그리고 성소 식별”이라는 주제로 열린 주교 시노드의 결과물이 될 것이며,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서한”의 형태로 구성됐다.

“주님 탄생 예고 사건은 성소에 대한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지난 주교 시노드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한 세 가지를 드러냅니다. 첫째 하느님 말씀과 계획을 경청하기, 둘째 식별하기, 셋째 경청하기”

### 1) 2017년 1월, 젊은이들에게 보낸 교종의 편지

이 문헌의 첫 페이지는 한편으론 프란치스코 교종이 지난 2017년 1월 13일에 (주교 시노드 제15차 정기총회 예비 문서 발표에 즈음하여) 젊은이들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과도 같다.

“여러분의 노력과 변화의 의지와 관대함으로 더 나은 세상이 건설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한 선택을 재촉하시는 성령께 귀 기울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양심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라고 재촉할 때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회 또한 여러분의 목소리, 정서, 신앙, 심지어 여러분의 의심과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소리 내어 외치십시오.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가 공동체에 울려 퍼지고 여러분의 목자들에게까지 이르도록 하십시오.”

### 2) 2017년 9월, 젊은이들의 상황에 관한 국제 세미나

교종의 초대는 2017년 9월 주교 시노드 사무처에 의해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 젊은이들의 상황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서 받아들여졌다. 젊은이에 관해 언급된 수많은 주제들이 그 세미나에서 논의됐다. 이주 문제부터 실업 문제까지, 사회적인 책임부터 정치적인 책임까지, 기술의 발전부터 신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뤄졌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귀를 기울이며 함께 성장합시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의 선택을 성숙시키고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집,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의 열망을 드러낸다.

### 3) 2018년 3월, 주교 시노드 제15차 정기총회 준비모임

이와 같은 염원으로, 교종은 2018년 3월에 로마에서 개최된 주교 시노드 준비모임에서 직접 대답했다. 교황청 국제신학원인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Maria Mater Ecclesiae)’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3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했고, 그 밖에 1만5000여 명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참여했다. 그들 모두에게 교종은 참된 그리스도교 전통의 자취 안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어서기 위해,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에 도전하라고 요청했다.

교종은 교회의 마음은 젊다면서,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젊은이들의 세상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젊은이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며, (심지어 젊은이들이) “건방지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교종은 젊은이들에게 “만일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다가가는 부분도 부족한 것”이라며, 어른들과 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견고한 뿌리를 내린 “젊은 예언자들”이 되라고 격려했다.

#### 4) 2018년 성지주일

주교 시노드 준비모임의 결실은 2018년 3월 25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이자 교구 젊은이의 날 행사를 통해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종에게 전달된 최종 문헌에 수록됐다. 젊은이들은 “이 문헌으로 교종님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열망과 우리의 삶을 전한다”며 “교회가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준다는 것을 신뢰한다”고 교종에게 설명했다. 사실 젊은이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바에 대해 자신들이 살아있는 증인이 되거나 현시대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아직)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교회에)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젊은이들은 교회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용서를 청하는 겸손”도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포용력 있고, 수용하며, 자비롭고 따뜻한 애정을 가진 교회를 바라고 있다. 교회는 젊은이들이 사는 곳, 심지어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도 만나야 하며, “통합적인 생태학과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를 함께 짊어지고 나감으로써 평화의 세상”을 건설하는 데에 그들을 동반해주어야 한다.

#### 5) 2018년 6월, 7개의 키워드로 된 주교 시노드 「의안집」

2018년 6월 19일에 발표된 주교 시노드 「의안집」은 몇 달 전에 시노드 사무처가 온라인으로 올린 설문지에 젊은이들이 대답한 10만장 이상의 답변지를 통합하고 모든 요청을 수용했다. 특히 7개의 키워드가 의안집에서 부각됐다. 곧 경청, 동반, 회심, 식별, 도전, 성소, 성화 등이었다. (「의안집」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고, “모범, 자격, 공동책임성과 문화적인 연대”를 위해 빛나는 교회가 되며, 젊은이들과 함께 복음의 빛에 따라 사는 삶을 나누도록,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찾던 기본적인 원칙을 다뤘다. 교회가 “덜 제도적이고

더 관계적이며, 미리 판단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으며, 자비로운 친구와 이웃”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 6) 2018년 10월, 시노드 최종 보고서

「의안집」에 담긴 주제들은 2018년 10월 바티칸에서 “젊은이, 신앙 그리고 성소 식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시노드의 “로드맵”이 됐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시노드 홀에서 발언했다. 젊은이들의 성찰, 그들의 증언, 그들의 강력한 호소가 시노드 최종 보고서에 모아졌고, 그 핵심은 루카 복음에 나오는 엠마오의 제자들 이야기였다. 동반과 경청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요청했던 본질적인 내용 중에서 강조된 사항들이고, 이와 더불어 학교와 본당의 노력,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 청년 이주 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강조됐다. 뿐만 아니라 최종 보고서는 진리를 실천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남용에 대항하는 교회의 확고한 책임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첫 신앙 공동체요 ‘가정 교회’인 가정에 대한 강조도 주요 내용이었다. 쓰고 버리는 문화를 반대하는 정의를 촉진하도록 권고하고, 예술이나 음악과 스포츠에 의해 제공된 “사목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리스도교 선포의 시각에서 소통의 잠재력을 신장시키면서,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도록 초대했다. 아울러, 최종 보고서는 사회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재인식하며, 또한 젊은이들이 성/섹슈얼리티가 선물임을 발견케 하고, 그들에게 “분명하고, 인간적이며 공감하는 말”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모든 것은 “공동합의성”을 통해, 다시 말해 ‘나’에게서 ‘우리’로 넘어가도록 자극하는 사명을 위한 스타일을 통해 이뤄진다.

## 7) 2019년 1월, 파나마 세계청년대회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올해 1월 제34차 세계청년대회를 맞아 파나마에서 교종을 만났다. 지난 2013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교종이 젊은이들에게 “목소리를 내라”, 다시 말해 ‘듣게 하라’고 권고했을 때처럼, 이제 교종은 젊은이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초대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그들의 “생신의 에너지”를 열매 맺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 차례 새로운 성령강림을 일구시는 성령의 은총에 항상 마음을 열고 교회의 젊음과 지속적인 새로움을 찾고 일깨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로지, 얼마 전 주교 시노드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경청하며 걸어나가고 서로 보완하며 들을 줄 알 때만, 우리 형제들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며 증거할 줄 알 때만 가능합니다. 그 봉사는 항상 구체적인 봉사여야 합니다.”

#### 8) 2019년 3월, 교종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3월 25일 월요일, 젊은이들에게 보낸 첫 번째 서한에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교종은 로레타의 동정 성모님께 서한의 형태로 구성된 주교 시노드 후속 교종 권고를 의탁한 것이다. 이는 주교 시노드 참가자들이 바랐던 대로 함께 걸어가고 대화하며, 경청하는 구체적인 표징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129항, 재인용 <Deus caritas est> 1항)

## 2.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차례

제1장 하느님 말씀은 젊은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제2장 영원한 젊음이신 예수님

제3장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입니다.

제4장 모든 젊은이들을 위한 위대한 메시지

제5장 젊음의 길

제6장 뿌리 있는 젊은이들

제7장 청년 사목

제8장 성소

제9장 식별

## 3.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교종권고의 수신자

‘젊은이와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권고’ 라고 표기되어 있다.

3항에 교종께서는 “이 권고는 우리 신앙에서 비롯되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는 동시에, 여러분이 성덕을 기르고 자신의 소명에 헌신에 나가는 서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황권고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여정의 표석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목자들과 신자들을 아우르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도 이를 보내 드립니다. 젊은이에 관하여 그리고 젊은이를 위하여 성찰하라는 요구와 격려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 4. 내용

2항.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당신께 돌아와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슬픔, 분노, 두려움, 의심, 실패를 겪으며 늙어 간다고 느낄 때에도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시고자 늘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 제1장 하느님 말씀은 젊은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 1) 구약성경

- 현실에 대한 솔직함(기드온)
- 젊은이의 영광은 물리적 힘이나 인상이 아니라 마음에 있음(다윗)
- 담대한 믿음(솔로몬, 나아만의 히브리 여종, 롯)

### 2) 신약성경

- 변화에 열려 있고 다시 일어서며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젊은 마음(루카 15,11-32)
- 참 젊음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 반대로, 우리를 서로 떼어 놓는 것들은 모두 우리 영혼을 늙게 만듭니다.(13항)
-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기를 꺾고 맙니다.”(골로 3,21)
- 그러나 동시에 하느님 말씀은 젊은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1베드 5,5). 성경은 노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이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들은 연륜을 쌓고 성공과 실패, 삶의 기쁨과 고통, 희망과 좌절을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16항)
- 부자청년 이야기(마르 10,20)
-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루카 7,14)

## 제2장 영원한 젊음이신 예수님

22. 예수님께서서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젊은이가 되시어 젊은이의 본보기가 되시고 주님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23. 예수님께서서는 서른 살을 조금 넘기셨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젊은이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청년기로 일컬어지는 시기에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가족이나 세상과 격기하거나, 때 묻지 않게 보호받는 선택된 소수로 만들어 버리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

은이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너그럽게 봉사하며 선교에 투신하게 하는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31.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젊은 예수님의 모습을 관상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셨고, 그분에게서 젊은 마음의 전형적인 측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 **교회의 젊음**

34. 젊음은 나이보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되새기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안에 언제나 살아 있는 오랜 과거를 풍부히 지니고, 시간 속에서 인간의 완성을 향하여 또 역사와 인생의 궁극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젊은이”임에 주목합니다.

### **쇄신에 열린 교회**

35. 교회가 늙어 가게 하거나 과거에 얽매이도록 하는 사람들, 퇴보하거나 안주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교회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주님께 청합시다. 교회가 또 다른 유혹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시도록 청합시다. 1) 세상이 주는 대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젊다고 믿는 것, 2) 교회의 메시지는 제쳐 두고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기에 교회가 쇠신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교회가 본연의 모습일 때, 날마다 하느님 말씀과 성찬례, 그리스도의 현존과 그분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을 때에 교회는 젊습니다.

38.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젊지 않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목소리와 관심사를 가까이 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시대의 징표에 주의를 기울이는 교회**

39. 예수님의 모습이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면 그들의 감수성은 일깨워질 것입니다. (중략) 이는 몇 가지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40. 세계주교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삶에서 의미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젊은이들은 교회를 성가시고 심지어 짜증나는 존재로 여기며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비판적이고 충동적인 경멸에서 나오는 요구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41. 침묵하며 말을 삼가는 교회를 그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신뢰를 주려면, 다른 이들의 말이 교회가 복음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빛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을 되찾아 그저 경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방어적인 교회는 겸손함을 잃고 다른 이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멈춥니다. 그러한 교회는 질문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자기 젊음을 잃고 박물관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젊은이들이 꿈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나 교회는 이 마르지 않는 보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합니다.

### 나자렛의 젊은 여인, 마리아

43. 마리아께서는 매우 어리셨지만,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면서도 천사의 예고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열린 마음과 영혼으로 마리아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루카 1,38)
44. 마리아께서는 무슨 위험이 있는지 아셨으며 재고해 보는 일 없이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예.’는 직접 동참하기를 바라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의 ‘예.’였습니다. 자신이 약속의 전달자임을 알게 된 확신 말고는 다른 아무런 보증도 없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예.’였습니다.
45. 회피나 환상에 기대지 않고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굳건한 인내와 창조성으로 ‘예.’하고 대답하는 법을 마리아께 배웁시다.”

## 젊은 성인들

49. “수많은 젊은 성인들은 젊음의 면모가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해주었고, 시대의 변화를 위한 참여연자들이 되었습니다. 젊은 성인들의 모범은 젊은이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자신을 열 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아르크의 요안나 성녀, 푸엔의 안드레아 복자, 가타리나 테카크위타 성녀, 도미니코 사비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제피리노 나문쿠라 복자. 이시도르 바칸사 복자, 피에르 조르지오 프라사티 복자, 마르셀 칼로, 키아라 바다노 복자.

63. 이러한 성인 복자들과 함께, 조용하고 충실하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수많은 익명이 젊은이들은 교회를 위하여 간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뻐하고 담대하며 헌신적인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온 세상에 성덕을 새롭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제3장 여러분은 하느님의 ‘지금(now)’입니다.

64. 젊은이들은 세상의 현재이기도 하며, 지금도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여러 책임들을 맡기 시작하고, 어른들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성장에 한몫을 하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젊은이들의 삶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긍정적인 측면에서

65. 세계주교대의원회는, 교회의 지체들이 언제나 예수님처럼 다가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보다는, “젊은이들의 진정한 물음들을 허용하지 않고 그들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때로는 틀에 박힌 정답과 구태의연한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66.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흔히 현대 젊은이들의 모든 문제와 실패만 열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일들은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렵고 위험한 측면들을 가려내는 전문가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간극은 더욱 벌어지고 사이는 멀어지며, 서로에게 주는 도움은 적어지게 됩니다.
67. 아버지, 사목자, 청년 지도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불씨를 지니고 있는 작은 심지,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은 연약한 갈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이사 42,3 참조). 남들이 벽만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길을 식별하고, 남들이 위험만을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시선입니다....(중략) 모든 젊은이의 마음은... 우리의 신을 벗어나는 하느님 생명의 못자리입니다.

### 젊은이들의 경험

71. 젊음은 추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젊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고유한 삶의 현실을 지니는 젊은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 위기의 세상 속 젊은이들

75. 교회의 젊은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비극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비극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은 어머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칫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세속 정신을 좇는 것입니다. 세속 정신의 유일한 해법이라고는 여러 다른 메시지와 오락거리와 속된 추구로 젊은이들을 마취시키는 것뿐입니다.
76. 아마도 “안락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우는 법을 모를 것입니다. 삶의 어떤 현실들은 눈물로 씻긴 눈에만 보입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나는 울 줄 아는가?’, ‘나는 굶주린 아이, 마약에 빠진 거리의 아이, 집 없는 아이, 버려진 아이, 학대당하는 아이, 사회가 노예처럼 착취하는 아이를 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우는 사람들처럼 내 눈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인

가?’”.... 우는 법을 알게 될 때에, 마음으로부터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85.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특히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 디지털 환경

86. 디지털 환경은 현대 세계의 특징입니다. 이는 더 이상 소통의 ‘이용’ 수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공간 개념, 자기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해, 소통하고 배우며 정보를 얻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는 고도의 디지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현실에 접근할 때에 듣고 읽는 것보다 이미지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습법과 비판 의식의 계발에 악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87. 여러 나라들에서 웹과 소셜 네트워크는 사목 계획과 활동에서도 이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참여시키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자리가 됩니다.

88. 그러나 이 현상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모든 인간 현실과 마찬가지로 한계와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한 가상 접촉을 소통과 혼동하는 것은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디지털 세상은 고독, 조작, 착취, 폭력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89. 디지털 세상 안에는,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보통신 기반(platform)의 활동 방식은 흔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돕고 서로 다름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폐쇄적 악순환이 편견과 증오를 조장하며 가짜 뉴스와 그릇된 정보의 유포를 촉진합니다. 가짜 뉴스의 확산은 진리에 대한 감각을 잃고 특별한 이해관계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는 문화의 표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약식 재판을 통하여 개인의 평판이 위협에 놓입니다. 교회와 교회의 목자들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90. 가상 세계에 대한 몰입은 일종의 ‘디지털 이민’, 곧 많은 사람들을 고독의 세계로, 스스로 만들어 낸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끌며 가정과 문화적 종교

적 가치에서 이탈하도록 부추겨 왔습니다....이는 그들이 가상의 만남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훌륭한 소통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우리 시대의 대표적 특징인 이민**

91. 전 세계적으로, 이주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이는 그저 지나가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대개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를 성취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민은 우리 신앙의 기본 측면,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히브 11,13)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93. 교회가 참여하는 환대 계획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계획들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체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온갖 남용의 종식**

98. 남용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권력의 남용, 경제적 남용, 양심의 저촉,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 분명 이 모든 남용에 결탁된 권위 행사의 행태들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건들을 다루는 데에서 책임감과 투명성이 부족했던 관행에 맞서야 합니다.

### **탈출구는 있다.**

103. 제3장에서는 현대 세계의 젊은이들이 놓인 현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하였듯이, 이 분석으로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동체들이 젊은이들의 상황을 존중하는 자세로 신중히 검토하여 젊은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목 방법을 찾도록 권고합니다.

104. 저는 부활 아침에 전해진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주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어둡고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에서도 탈출구는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창의력과 천재성을 보여주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경자 카를로 아쿠티스가 그러합니다.

106. 그는 말하였습니다. “누구나 고유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남들을 모방하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07.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은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젊다는 것은 다만 순간의 쾌락과 피상적인 성공을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10. 우리가 다른 이들과 떨어져 살아간다면, 욕정, 악마의 올가미와 유혹, 그리고 세상의 이기심에 맞서 싸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혹의 폭격을 당할 때에, 우리는 매우 고립되고 현실 감각과 내적 명료함을 잃어버려서,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생활에 열의를 가진다면, 여러분은 다른 이와 공동체를 위하여 커다란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립은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고 우리 시대의 더 지독한 악에 여러분을 노출시킵니다.

#### 제4장 모든 젊은이를 위한 위대한 메시지

111.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고, 저는 이제 젊은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결코 침묵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야 하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 사랑이신 하느님

112.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무한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114.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이사 49,16)
116. 주님의 사랑은 바로 날마다 사려 깊게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유로우며 자유롭게 하는 사랑, 치유하고 일어나게 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사랑입니다.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해시키는 사랑입니다.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사랑입니다.

117. 하느님께서서는 여러분이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 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당신께 말하지 않을 때,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않을 때입니다. 야곱은 하느님과 씨름하지만(창세 32,25-31 참조) 꾸준히 자신의 여정을 지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서는 몸소 우리에게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이사 1,18)하고 요청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생생하고,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구체적입니다.

###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118. 두 번째 위대한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당신 자신을 온전히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120. 우리는 예수님에 맞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품에 안긴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우리의 문제점, 부족함, 결점을 통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쓰고자 하십니다. 진짜로 넘어지는 것, 바로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삶을 망칠 수 있는 진짜 넘어짐은, 땅에 주저앉은 채 도움마저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124. 마지막으로, 두 번째와 분리될 수 없는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먼 과거의 좋은 모범으로만, 하나의 기억으로만, 그런 분으로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해방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는 것입니다”(1코린 15,17).

125.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든 그분께서는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127.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에, 의심의 여지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선은 승리할 것이며 모든 노고는 가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 그리하

여 우리는 불평을 멈추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라면 언제나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는 확신입니다.

128. 다른 모든 해결책은 미약한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삶의 폭풍우 앞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확고히 뿌리내려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29.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에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132. 열정을 찾고 있습니까? 사랑에 빠지십시오(또는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느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하느님과 결정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133. 하느님께서 가장 멋진 젊음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뺏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기”(예레 17,8)때문입니다.

## **제5장 젊음의 길**

134. 젊다는 것은 하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 **꿈과 결정의 시간**

138. 젊은이들 마음에 있는 많은 갈망은 ‘조바심<sup>21)</sup>’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21) 역자 주: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긍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인 ‘restlessness’는 ‘조바심, 동요, 불안, 걱정, 찻찻하지 않음’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젊은이들 마음의 부단한 움직임이라는 뜻을 담아 건강한 ‘조바심’으로 번역하였다.

141. 지나치게 많은 인간적 계산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염려를 접어 두고, 깊은 데로 저어나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서 벗어나십시오.
142. 여러분의 희망과 꿈을 계속 따라가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주춤하게 만드는 한 가지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불안입니다. 곧바로 결과물을 보지 못할 때면 우리는 불안해져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꿈들은 조급함이 아니라 희망과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실수를 저지를까봐 두려워하며 머뭇거리서는 안 됩니다.
143.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먼발치에서 삶을 관조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안락의자가 아닙니다. 화면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 삶의 경험에 대한 갈망

144. 젊은이들이 완전히 미래만 그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삶이 주는 기회를 최대한 누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47. 분명, 하느님의 말씀은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즐기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4). 이 말씀은 현재를 충만히 살라는 것입니다.
149. 어려운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곳,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바로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역설적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어둠은...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 그리스도와 나누는 우정 안에서

150. 여러분이 지금 젊은 시절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는다고 해도 예수님과

이루는 우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시절의 심오하고 완전한 의미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153.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요한 15,15)
156. “그리스도교는 믿어야 하는 진리나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금기 사항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교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멀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나를 무한히 사랑하고 내 사랑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한 인격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입니다.”<sup>22)</sup>

## 성장과 성숙

158.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1요한 2,14).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십시오.
160. 어른들도 젊음의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나이 들고 삶의 틀이 잡혀도, 우리는 결코 젊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큰 실재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고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161. 나이 든다는 것은 젊음이 선사한 가장 귀중한 것을 소중히 간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좋지 않은 것은 정화하여 하느님께서 주신 새로운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2. 성인들을 닮아 가는 것은, 성인들의 생활양식과 성덕 실천 방식을 모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더욱 온전히 자신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방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창조하신 뜻에 맞갖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

22) 성 오스카 로메로, 강론, 1977, 11, 6

## 형제애의 길

163.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무엇보다 먼저 형제애와 너그러우며 자비로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의 행복을 추구하는 ‘황홀경(ecstasy)’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164. 하느님과의 만남을 ‘황홀경’이라 일컫습니다. 이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들어 높이며 하느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 젊음과 헌신

168. 폭력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현실을 보며, 때로는 젊은이들은... 도전가 문제들을 멀리하고 작은 무리에만 갇혀 있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형제애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사실 그들의 작은 무리는 확대된 자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평신도의 소명을 단순히 독서자, 복사, 교리 교사와 같이 교회 내 봉사의 한 형태로만 생각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169. 여러분이 자신의 작은 무리를 넘어 “사회적 친교”를 이루고 “공동선을 추구할” 것을 당부합니다.
174. 제발 계속해서 무관심에 대항하고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그리스도교의 응답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참여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구경꾼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여하셨습니다.

## 용감한 선교사

175.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젊은이들은 어느 곳에서도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훈장을 달고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빛을 독차지하여 손에 횃불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메시지입니다.”

177.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는 경계도 한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곳으로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 제6장 뿌리 있는 젊음이

### 뿌리째 뽑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180.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젊음의 기쁨과 젊음에 대한 그릇된 추앙을 구별할 할 있습니다.

183. 지치고 때 묻은 모습이지만 가족을 위한 양식을 벌었다는 기쁨으로 집에 돌아온 노동자의 아름다움을 깨달으십시오. 이 아름다움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은 참된 사회 연대와 만남의 문화에 기초가 됩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바로 그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185. 세계화와 함께 그들 나라(서구권이 아닌)에 문화적 식민지 형태들이 유입되어, 젊은이들이 자신의 소속문화와 종교에서 뿌리째 뽑혀 나가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젊은이들과 동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계화의 과정에서 젊은이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의 특징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186. 여러분의 뿌리를 보살피십시오. 그 뿌리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 젊은이와 노인의 관계

188. 하느님 말씀은 우리가 노인들을 가까이하여 그들이 경험에서 배우라고 권고합니다.

189. 또한 성경은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업신여

기지 마라.”(잠언 23,22) 하고 이룹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딸린 첫 계명입니다”(에페 6,2; 참조: 탈출 20,12; 신명 5,19; 레위 19,3).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에페 6,3)

190. 이는 젊은이 여러분이 노인들의 모든 말에 수긍하거나 노인들의 모든 행동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는 언제나 비판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191. 세대 단절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새로운 것만이 좋고 아름답다고 믿게 만들려는 속임수입니다. 세대 간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동체들이 집단적 기억을 가지고 있음을 내포합니다. 격언이 말하고 있듯이 “젊은이는 지식을, 노인은 힘을 가진다면, 그들이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 꿈과 전망

192.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전망을 지닙니다. 어떻게 이 둘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을까요?
193. 노인들은 자신의 오랜 흔적을 담고 있는 기억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꿈을 꿉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그러한 꿈에 뿌리를 내릴 때에, 젊은이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194. 이 모든 꿈 가운데서 가장 최초의 꿈은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서 꾸신 창조자의 꿈입니다. 이 꿈은 모든 하느님 자녀의 삶에 선행하면서도 그 삶을 동반합니다. 세세 대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기억은 우리가 생생히 간직하여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195. 그러하기에 노인들은 자신의 긴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 「시간의 지혜」라는 책에서, 저는 질문 형식으로 몇몇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저 자신도 포함되는 노인들에게 어떤 당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까? 저는 우리 노인에게 기억의 지킴이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197. 우리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자신만의 영웅적인 포부와 불안정함을 함께 지니고 있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사랑이 없는 삶은 메마른 삶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 **함께 위험 감수하기**

198. 내어 주고 실천하는 사랑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도 자주 과오를 저지릅니다. 노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과오마저도 당신 창조의 도구로 써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200. 뿌리는 우리를 과거에 붙들어 놓는 닻도, 우리가 현재를 직시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닻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 감각으로 우리 문화를 살피고 이를 복음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파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201. 우리는, 어른들을 무의미한 과거의 상징이라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휩쓸려 항로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언제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어른들에게도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 같은 카누에 탑승하여,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찾아 나섭시다.

## **제7장 청년 사목**

202. 점점 더 명확해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 전체가 젊은이들의 복음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젊은이들이 사목 활동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입니다.

203. 저는 젊은이들 자신이 청년 사목의 주역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더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통찰력과 독창성과 지식을 활용하여 그들만의 언어로 다른 젊은이들의 사안들과 관심사를 다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204. 청년 사목은 더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움의 기회뿐만 아니라, 대화하고 경축하며 노래할 수 있는 기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 살아계신 하느님과 만나는 공동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행사에 젊은이들을 초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05. 좋은 결실을 거두고 복음이 기쁨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6. 청년 사목은 시노드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하는 여정’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년 사목은 “성령께서 교회 구성원 각자의 성소와 역할에 따라 베풀어 주신 은사들을, 공동 책임의 역동성을 통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207.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 배워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녀야 하는 본연의 모습인 그 놀라운 다면적인 실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행동 노선

209. 청년 사목은 두 가지 주요 행동 노선을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다가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장입니다. 다가감은 젊은이들을 주님 체험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성장은 이미 주님 체험을 한 젊은이들이 그 체험 안에서 더 성숙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210. 첫 번째 행동인 다가감과 관련하여, 저는 젊은이들 스스로의 역량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다만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선교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할 뿐입니다.
211. 이 다가감에서, 우리는 또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오늘날 젊은이들의 언

어로 케리그마(kerygma)를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12. 성장과 관련하여,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젊은이들 안에 강렬한 하느님 체험과 그들 마음에 와닿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불러 일으킨 다음, 오직 교리 도덕 문제들을 다루는 일련의 ‘양성’ 모임들만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현대 세계의 악, 교회, 사회 교리, 정결, 혼인, 산아 조절 등의 주제에 관한 양성 모임들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지루해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을 때 불타오르던 그 열의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양의 교리 내용을 전수하겠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먼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교 생활을 뒷받침하는 그 위대한 체험들을 되살리고 뿌리내리게 해 줍시다.
213. 젊은이들의 성장을 위한 모든 교육 계획이나 여정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교 교리와 도덕에 대한 양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나 여정이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는 케리그마의 심화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형제적 사랑과 공동체 생활과 봉사 활동의 성장입니다.
214. “케리그마보다 더 탄탄하고 깊이 있고 확실하고 의미 있고 지혜로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교육은 무엇보다도 케리그마의 심화입니다.” 따라서 청년 사목은 언제나 하느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새롭게 하고 심화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기회들을 늘 포함해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기쁜 체험이 일종의 ‘주입식 교육’으로 대체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 적합한 환경

217. 몇 번이나 용서하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까? 일흔일곱 번이라도, 필요하다면 매번, 용서하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날마다 인내와 용서로 다져진 신뢰가 필요합니다.
218. 우리는 교회 기관들 안에 젊은이들만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자리,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젊

은이들이 우정과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며, 음악, 여가 활동, 운동뿐만 아니라 묵상과 기도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근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사목 자원이나 사목 전략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219. 젊은이들은 다른 젊은이들을 이끌 수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진정한 사도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사목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들**

221.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든 상상이든 변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위험요소들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224. 많은 젊은이들이 침묵 안에서 하느님과 친밀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젊은이들이 이 소중한 체험을 맛보도록 돕는 적절한 방식과 수단만 찾으면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가톨릭 젊은이들은 신선하고 참되고 기쁜 전례 안에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도와 성사 거행의 기회들을 요구합니다. 전례 주년의 중요한 시기, 특히 성주간, 성령강림 대축일, 주님 성탄 대축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다양한 축제의 만남.
225. 많은 젊은이들은 다른 이들, 특히 어린이와 가난한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료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우리의 교리 교육이나 영성 교육 프로그램들에 식상해 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활동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합니다.
226. 우리는 예술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음악은 특히 중요합니다. 음악은 젊은이들이 계속 몸담아 온 실질 분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악은 감수성을 일깨우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이자 언어입니다. 음악의 언어는, 특히 전례와 전례 쇄신과 연관된 사목적 자원이기도 합니다.” 노래는 젊은이들의 삶의 여정에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227. “젊은이들 사이에 스포츠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스포츠계는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측면들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승자에 대한 우상화, 지나친 상업화,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는 성공 개념이 그러한 측면들입니다. 스포츠 경험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운동하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창조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만끽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228.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자연은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 야영, 도보, 소풍, 친환경 캠페인.
229. 이처럼 젊은이들의 복음화를 위한 여러 다양한 기회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젊은이들의 감성도 변하기 마련이지만,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힘을 지닌 결코 퇴색되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살아 있고 힘 있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이 되는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강인하게 해 주는 고해성사가 그러합니다.

## 대중 청년 사목

230. 대중 청년 사목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다양한 자리들에서, 성령께서 이미 젊은이들 가운데에 씨 뿌려 놓으신 은사들과 타고난 지도력을 촉진하는 더 폭넓고 유연한 사목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웃이나 다른 분야에서 타고난 지도자가 되고 있는 신자 젊은이들에게 장애물이나 규범, 통제, 틀에 박힌 의무를 부과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고 싶은 데로 부시는 성령의 놀라운 활동을 신뢰하면서 그저 그 젊은이들을 동행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231. 여기서 말하는 ‘대중’이란, 사회나 교회의 구조들이나 개별적으로 걸어가는 개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모든 이를 위한 긴밀한 유대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밀알만 보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마태 13,24-30 참조). 흔히, 완전무결한 청년 사목, 추상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흠 없이 완벽한 청년 사목을 주장하다 보면, 우리는

복음을 진부하고 무의미하며 매력 없는 명제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233. “그리스도교에 대한 편협하고 윤리적인 인상을 심어 주는 규칙들만 모아 놓아서 젊은이들을 숨 막히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실수와 실패와 위기도 젊은이들의 인성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경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젊은이들의 대범하게 투자하고 젊은이들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234.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는, 모든 다양한 젊은이를 위한 자리가 있고 우리가 참으로 열린 교회임을 보여주는 포용적인 청년 사목을 당부하셨습니다. 어떤 이가 젊은이들을 위한 우리의 활동들에 참여하려고 할 때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완전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접하고자 하는 원의와 의향을 지니고 있는 모든 이를 향하여 열린 마음가짐만 있으면 충분 합니다. 일부 사목 활동은 어느 정도의 신앙 여정 경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이에게 문이 열려 있고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있는 대중 청년 사목이 필요합니다.
235. 다만, 자만하지 않고 개종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에게 손 내밀고 주님의 사랑을 증언해야 합니다.
236. 엘리트주의를 버리고 기꺼이 ‘대중적’이 되고자 할 때 인내로우며 희망차고 지칠 줄 모르며 공감하는 여정이 됩니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청년 사목 모델로 제시(루카 24,13-35)
237.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 공동체로 돌아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체험을 나누려고 자기들이 왔던 그 길로 지체 없이 되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238. 대중 신심, 특히 순례는, 교회 구조 안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이끌어 들이는 힘이 있고,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지가 됩니다. 이는 장려하고 촉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중 신심은 “신앙을 실천하는 합당한 방식이고”<sup>23)</sup> “하느님 백성의 자발적인 선교 활동의 표현”<sup>24)</sup>입니다.

---

23) 「복음의 기쁨」, 124항.

## 항구한 선교사

239. 여기에서 저는,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는 데에는 긴 여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순례를 나서며 친구나 동료에게 자신과 동행하고자 초대하는 젊은이는 이 소박한 몸짓으로 소중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 청년 사목과 대중 선교는 서로 떼어 낼 수 없습니다. 대중 선교는 교회의 모든 기존 관행에 견주어 파격적입니다. 대중 선교에 함께하여 힘을 실어 줍시다. 대중 선교를 지나치게 규제하려 들지는 맙시다.
240.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청년 사목이 언제나 선교 사목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 어른들의 동반(accompaniment by adults)

242. 젊은이들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동반도 필요합니다. 가족은 그러한 자리의 첫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사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상적인 삶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집, 그들의 삶은 혼인과 부부 사랑 위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청년 사목과 가정 사목은 성소 여정의 지속적이고 적절한 동반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43. 젊은이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거나 그들 나이에 맞지 않는 완벽함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246. 동반자 사목. 동반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자신의 인간적 본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반자는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란히 걸어가면서 식별 과정에 따르는 자유를 존중하고, 젊은이가 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역량을 진심으로 믿어 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들 안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활

---

24) 「복음의 기쁨」, 122항.

동이 곧바로 결실을 나타내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 제8장 성 소

### 다른 이들을 위해 있어 주는 것

256. 결정적으로, 성소 식별은 내가 창조된 이유,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주님께서 내 삶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257. 성소는 단지 어떤 일들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미와 지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문제입니다.
258. 모든 젊은이들의 삶 속에서 이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있어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가족의 형성과 노동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와 연관됩니다.

## 제9장 식 별

### 우리의 벗 예수님의 부르심

290. 모든 율법과 모든 의무를 떠나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려고 제시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 경청과 동반

291. 경청에는 구별되면서도 보완적인 세 가지 감각 또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292. 첫 번째 감각 또는 배려는 개인을 향합니다.
293. 두 번째 감각 또는 배려는 식별입니다. 이는 어디에 은총이 있고 어디에 유혹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는 것입니다.

294. 세 번째 감각 또는 배려는 상대방을 이끌어 나가는 추진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가 바로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까지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일 떠나, 그가 진정 되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삶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필 것을 요구합니다.
296.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루카 23,34 참조).
297. “시간이 공간보다 위대하기”<sup>25)</sup>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정표를 강요하지 말고 여정에 함께하며 격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정은, 언제나 자유롭고 유일무이한 사람들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표지가 긍정적으로 여겨질 때에도 쉬운 길은 없습니다.
299. 굼뜨고 두려워하는 다른 모든 이보다 앞서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만 바라보며” 계속 달려가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추진력, 여러분의 통찰력, 여러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에 여러분이 먼저 도착하면 거기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시오.

---

25) 「복음의 기쁨」, 222항.

